금주의 기도

할렐루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분쟁과 폭력으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4년 6월 22일 (토) 제 1973 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센터처치 그 후, 하나님 공동체의 시작

한 개인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크고 작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며, 평생에 걸쳐 이루어야 하는 길고 머나먼 여정이다. 그러나 이 고단한 길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더불어'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낯선 사람, 비열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나를 배신하고 해치려는 원수들이 항상 주위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는 더불어 산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 나의 가족으로, 나의 동료로, 나의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의 성장은 고달프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상적으로 묘사된 신앙의 삶과 공동체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 성경 속 초대교회를 동경하며, 말씀에 근거한 새 판을 짜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 행복하고 낭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꿈꾼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망상일지도 모른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쉽다거나, 자연스럽게 서로 희생하는 삶으로 전환된다고 암시하는 장면은 없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타락했고 여러 갈등을 안고 있었으며 지금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계시록 2, 3장). 성경 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과 무지와 불순종의 연속을 보라. 우리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조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과 기능의 분담, 리더가 임명되고 필요한 물품들과 안전한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기록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지출에 대해 정확한 계산을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관계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고백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와 시각이 다르며 갈등과 싸움을 유발한다.

팀 켈러는 아마 공동체에 닥칠 번거로운 세부 사항을 받아들이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가 쓴 센터처치는 그의 30년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적 비전과 열매 맺는 사역의 실제에 대해 공유한다. 이 책은 800페이지라는 충분한 지면을 할애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연결해야 하는지를 끈기 있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진 포스트모던 사회 문화 속에서 '문화적 상황화가 필수가 되었음'을 조심스럽지만 일관되게 주장하며, 한 사람이 교회생활뿐 아니라 교회 그 자체로서 가정과 일터에서의 일상생활에서의 펼치는 총체적 헌신의 거룩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를 설득한다.

센터처치가 명작인 이유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열한 고민 속으로 초대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의 맥락과 도시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던지는 그의 자신감 있는 어조의 문장들은 우리를 크게 도전한다. 장소와 때를 불문하고 열매 맺는 복음의 삶을 위해서는 이전 교회 역사 속에 없던 '넓은 이해의 폭이 필요하다'는 외침, 각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외침, 문화를 대하는 교회마다의 입장에 대해 넓게 이해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외침, 한 사람이 문화 가운데 선교사로 세워질 때 '관계의 진실성'을 장착하고 명확한 반문화적 가치로 정결한 삶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외침, 말씀과 행동이 함께 가는 실천 노하우와 방법론을 연구하라는 외침, 나는 그의 모든 제안이 큰 외침으로 들린다. 팀 켈러의 외침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 구체적인 영역들을 꼼꼼하게 다룸에서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 중요한 많은 내용 중에 작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점들을 찾아 이어보고자 한다.

1. 한 사람이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우리는 '한 사람'에서 시작해야 한다. 팀 켈러는 제도적 교회의 역할에 대해 마침내 한계점을 인정하고,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로서 "단지 구분되고 분리된 개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3면으로 계속〉

6.25를 맞으며

윤일흠 목사(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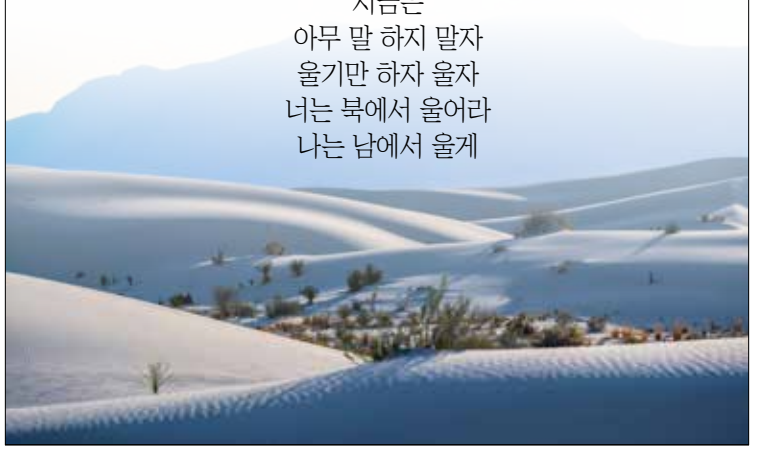
누이야

누이야,
북에서 온 나의 누이야
참 많이 아팠지, 힘들었지...

저 사람들 뒤에서
울고 있는 나를 보았니
다시 돌아간 예쁜 누이야
너도 울면서 갔니

서럽고 배고프던 시절
한 이불에 시린 발 넣고
터진 손 서로 만져주던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누이야,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말자
울기만 하자 울자
너는 북에서 울어라
나는 남에서 울게



3면

시론
백승철 목사

4면

푸른초장
장경호 목사

16면

6.25 특집
이성모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년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 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 저 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 LILYMD. 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일어나라

지난 6월 15일 청소년 집회 때 발표한 자작(自作) 시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숨 가쁜 음성이 들렸다.
"내가 목마르다"
누군가 그 입술에 적시어 드린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내 주변에 다른 어른들도 많았건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목마름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10대에 불과한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기에
나는 멀찍이 앉아 주변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눈망울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꼈다.
"일어나라. 내가 목마르다. 지금 네가 내게 물을 가져다 다오."

언제부터인가 교회 가는 것이 따분해졌다.
예배보다 재미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항상 떠들썩했던 기도회 시간보다 중요한 모임이 더 많아졌다.
나는 계획했다. 조용한 탈출. (Silent Exodus)
캠퍼스로 떠나던 날이 조용한 탈출의 날이었다.
교회를 떠난 지 10년 만에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 다시 교회로 가게 되었다.
친구는 요즈음 교회는 조용하다고 했다.
나를 비롯한 친구들이 한 명 두 명씩 조용한 탈출에 성공했다.
더 이상 모이는 이가 없는 기도회는 뜨거운 기도회가 아니라고 한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기도회가 힘겹게 이어진다고 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나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을 그 결혼식에서 만났다.
선생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다시 돌아오라.
네가 친구들과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간청한다. 다시 교회를 강하게 교회를 지켜다오, 기도 소리가 다시 크게 들리게 해다오."

미국은 기회의 나라. 특히 이민자들은 아메리카 꿈을 더욱 크게 꾸면 산다.
이민 다음 세대인 내게도 꿈이 있었다.
부모님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으리.
나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으리.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연봉, 나의 만족, 나의 자유를 위해 살리.
그런데 누군가 자꾸 성가시게 묻는 것 같았다.
"너 정말, 행복하니?" "너 정말, 만족하니?"
"너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니?"
정직하게 대답하자면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일어나라. 거짓 꿈에서 깨어 일어나라. 네가 진정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너를 살린 진리의 횃불을 꺼뜨리지 말고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한다."

나의 예수님은 내게 지금 일어나라고 하신다.
나의 교회는 내게 다시 일어나라고 한다.
나의 인생은 내게 깨어 일어나라고 한다.

이제 막 부임했는가? 거기서 적어도 5년은 사역해야 한다

당신에게 적응하고, 당신의 사랑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막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다면, 적어도 5년 동안은 인내심을 갖고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현명하다.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둘이 아니다. 물론 다른 조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독특한 상황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하자면, 목회자가 일단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면 그 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왜? 교인들이 목회자로서 당신에게 적응하고, 당신의 사랑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이 신실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에 입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1. 교인들이 아쉬워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전임 목사의 공백을 이겨내고 새 목회자에게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쨌든 당신은 전임 목사와는 다른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과 함께 사역과 관련해서도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는 전임 목사가 갖지 못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수년간 진액을 쏟아 교회에 헌신했던 하나님의 종, 전임 목회자에게 순종했던 교인들의 입장에서 두 목회자의 차이를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전임 목사는 힘든 순간에도 그들을 섬겼다. 그는 그들과 인생의 기쁜 순간을 함께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독특한 방식, 즉 이제는 교인들이 익숙해진 바로 그 방식으로 교회를 섬겼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리더십으로의 전환은 그 방향이 아무리 건전하더라도, 전임자를 신뢰하는 교인들에게는 거슬릴 수밖에 없다.

전임자와의 차이가 꼭 단점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차이가 반드시 당신의 부족한 신실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교인들이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리틀 야구 시절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명의 코치로부터 야구를 배웠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 그러다가 갑자기 새로운 코치가 왔다.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 당연히 익숙한 이전 코치가 그리울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코치의 모든 방식에 회의적일 것이다. 그는 다른 코치이다.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는 당신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전임 코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목회의 리더십 교체도 이런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교인들에게 전임 목사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목자로서 당신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은 큰 가치가 있다.

2. 교인들이 당신의 헌신과 사랑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

교회는 교회를 향한 당신의 헌신과 사랑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미성숙하거나 교인들의 기대가 비현실적인 경우에, 나아가서 아직까지 비성경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경우에 더 그렇다.

아마도 그런 교회는 목회자를 쫓아낸 역사가 있거나 아니면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훌쩍 떠나간 목회자를 만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목사들의 평균 사역 기간이 매우 짧은 교회일 수도 있다. 교인들은 당신도 여기에서 1-2년 있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전 목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배신하거나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일으킨 상처의 골이 워낙 깊어서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상황이 어떠하든, 교인들이 회의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들은 당신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빨리 떠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신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당신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도 꺼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교인들이 당신의 헌신과 진심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교회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교회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지도 않을 게 분명해지려면, 당신을 증명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때가 되면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신실한 말씀 사역으로 교인들에게 성숙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양들의 유익을 구하는 목자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시간을 줘야 한다.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때를 가리지 않고 당신의 진실한 성품을 확인하고 신실한 보살핌을 받도록 하라.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2 L.A. CA 90006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요셉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요셉장학재단(The Joseph Scholarship Foundation)은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2022년도부터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장학재단은 퀸즈장로교회를 개척해 미주한인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고 장영춘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입니다.

신청자격 신학교 재학생 (M.Div, Th.M, D.Min, Ph.D)

신청서류
1) 목회에 대한 사명감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신앙고백문 (1장, 한영 가능)
2) 추천서 2통 (출석교회 담임목사 1통, 재학중인 신학교교수 1통)
3) 재학 중인 신학교의 성적 증명서
4) 이력서 (사진포함)

신청 접수처 우편: 36-14 165th St. 3AN, Flushing, NY 11358
이메일: thejosephscholarshipfoundation@gmail.com

요셉장학재단 대표: 장미은

신 청 마 감 2024년 7월 13일(토)
장학금수여식 2024년 8월 5일(월) 오전 11:00 퀸즈장로교회
문 의 정기태 목사 (917-733-7387)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은 재단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합니다.
선발된 신학생은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장학금은 M.Div (신학생) 중심으로 수여합니다.

선발인원: 10명내외 개인당 2000불 지원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헌신하며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해낼 귀한 차세대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을 꼭 찾게 "

센터처치 그 후

〈1면에서 계속〉

그 개개인의 한 사람이 세상 문화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며, 창조적 형태로 모인다"는 것이다(502-503). 여기서 제도적 교회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속한 세상에서 '유기적'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갖춰 목양적 지원의 주체가 된다. 팀 켈러는 이 일을 이루어 갈 때 겪을 수많은 시행착오를 우려했지만, 우리에게 오만하지도, 비난하지도, 좌절하지도, 순진하게 생각하지도 말라고 강조하면서 그의 주장을 조금도 꺾지 않는다.

이 한 사람은 단지 교회의 파견인 개념이 아니고, 교회 안의 개인 신자의 개념도 아니다. 교회의 예배와 훈련 가운데 형성된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의도하지 않아도 어디에 있건 자신의 정체성을 유기적으로 드러내는 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한 사람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유기적 교회로서의 새로운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뤄가며 복음을 맥락화하여 전하는 선교사로 세워지는 것이다. 복음의 생태계는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 도시 속에 연결된다.

이 한 사람은 어디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한번 '한 사람'이 처한 문화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난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 교회는 최선을 다해 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이에 각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작은 가지와 같이 문화의 바람을 맞아야 한다. 새로운 순이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작디작은 감격스러운 한 사람을 사랑하자.

2. 균형의 이해: 들음에서 시작하기

'센터처치'라는 제목은 극단으로 향하는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다양한 태도들'을 한데 모아 중심에 붉은 원으로 센터를 그려 넣은 도식에서 따온 제목이다. 쉽게 말하면 중심을 잃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는 뜻이다. 교회가 문화를 배척하고 문화를 변화시키려 하면 안 된다는 입장, 문화에 열려 있는 입장, 문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 문화를 변혁하자는 입장 등 다양한 신념들에게 정중앙에 있는 센터를 가리킨다. 여기서 균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모델들의 장점을 결합하고, 약점들을 피하며 극단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극단에 있는 입장들을 중앙으로 끌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 균형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쓸 것을 제안한다. 팀 켈러의 주장들을 종합해 새롭게 재정의해 보자면,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나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말한다. 동시에 '내가 그토록 소중히 지키는 관점의 약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태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들고 원치 않는 에너지를 써야 하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최근 청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프로그램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를 시청했다. 정치, 성평등, 경제 수준,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사상을 가진 열두 명의 시민이 자신의 사상을 숨긴 채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이야기다. 자유롭게 논의해서 리더를 뽑고 적정한 세금을 걷으며, 일정 기간 수익 활동을 하고 무엇을 먹을지 식자재를 결정하고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과정을 연상하게 한다. 젊은이들의 생각을 훔쳐보려던 의도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놓치고 있는 예상치 못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봤다. (1) 양극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사랑하며 공존할 수 있다는 것, (2) 인격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오만과 극단적 고집을 피할 수 있다는 것, (3) 서로 눈을 보고 이야기하며 자주 모이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4) 사랑과 긍휼에는 사상적 다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등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관점을 변호하다가 그 관점의 사람들을 크게 이해하게 되는 지점이었다.

또 다른 예로, 요즘 출판업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엮은 대화집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장통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서부터 고집스럽게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인터뷰까지, 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작가들이 오늘날 이렇게 각광을 받을까?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드물기 때문이다. 연기 미학을 깊이 연구하는 배우들의 인터뷰집에서 한 배우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에게 말했다. 요즘은 서로의 연기와 작품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데 "내 작품을 보았을 뿐 아니라 뒷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이다. 사람은 듣는 태도에 마음이 열린다.

'잘 들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소중히 쌓아 올린 가치관을 몇 개 무너뜨리라는 것도 아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뜻이다. 들음으로써 내 생각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죄의 문제를 보라는 말이다. 들음으로써 상대방의 약함과 강함을 이해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뜻이다. 들음으로써 나만의 복음의 맥락화를 더 견고하게 하라는 이야기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듣고 배움으로 좋은 복음의 습관을 형성하기를 바래 본다. 균형을 이해하는 일은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3.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디폴트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본값으로 놓아야 한다. 한 사람이 유기적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균형 잡힌 문화관으로 폭 넓게 들으며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복음전략이 기도가 되게 하고 문화 속에서 순결한 신부로 버티는 모든 순간이 찬양이 되게 하라는 말이다. 기독교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보이는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탐욕의 일이 쉽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개인 내면의 영성 형성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팀 켈러는 〈센터처치〉를 이어가며 틈틈이 한 사람의 내면적 진정성을 논하고 있다. 짧다고 간단한 언급이라고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앞서는 것은, 만약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헌신과 봉사라도, 우상이 된다.

센터처치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기도 같은 책들과 같이 읽어야 하며, 기도와 순종으로 진리를 찾아내야 하는 보물 지도와도 같다.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생생히 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상생활에서 그의 사랑과 긍휼과 정의를 실천하고, 자신과 타인 안에 있는 우상과 죄를 볼 수 있고 다룰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길이 때로는 이해 가지 않아도 친밀감과 믿음으로 따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삶이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며 서 있다. 녹록지 않은 그 성장의 장으로 그렇게 또 나를 밀어 넣는다. 그러함에도 더불어, 함께 갈 이유, 그것은 복음의 본질 때문이다. Soli Deo gloria.

by 서나영, TGC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며 서 있는 것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시 론

넷플릭스(Netflix) 3부작 다큐멘터리
'악마를 위한 춤' 문화 현상을 이용한 사이비를 주목하라
Dancing for the Devil: The 7M TikTok Cult _ a three part documentary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교회. 시인. 문학평론가)

넷플릭스(Netflix)는 최근 3부작 다큐멘터리 '악마를 위한 춤'을 방영했다. 부제목이 'The 7M TikTok Cult'이다. 단순히 미국에 국한된 에피소드가 아니라 190개국 이상 나라에서 수 억 명이 시청했을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흥미를 자극하는 시대의 불안전한 감성이 내재되 있다. 게다가 기독교, 목사, 문화, 교회, 사업, 가출, 집단생활. 임금착취가 얽혀 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 집단의 속내가 드러난 사건이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사건의 중심에 한인 커뮤니티에 소개되지 않은 한인 목회자 로버트 신(Robert Shinn)이 있기 때문이다.

미란다 윌킹(Miranda Wilking. 결혼 후 Derrick)과 동생 멜라니(Melanie Wiiking)는 티톡(TikTok)에서 구독자가 200~300만이 넘는 유명한 바이럴(Viral) 댄서였다. 그런데 2021년 초 미란다가 갑자기 피드에서 사라졌다. 동생 멜라니와 부모는 미란다의 행방을 찾았으며 세키나교회(Shekinah. LA 소제)의 담임목사인 로버트 신의 종교단체에 2019년에 가입 후 세뇌를 당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2022년 2월 동영상을 통해 미란다 사건뿐만 아니라 10명이 로버트 신이 운영하는 7M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에 갇혀있다는 사실도 폭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그곳을 빠져나온 사람들의 증언으로 보다 많은 사건의 정보가 구체화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1999년 한인 청년 이민자로 세키나교회에 출석한 자매인, 멜라니 이(Melanie Lee)와 프리실라 이(Priscylla Lee)도 조명되고 있다. 포섭된 구성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철저하게 통제받던 멜라니는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프리실라는 떠나는 것을 포기해 두 사람은 10년 동안 만나거나 교류할 수 없었다.

세키나교회는 15여 명의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다. 로버트 신 목사는 수년에 걸쳐 카페 1개, 모기지 회사 2개, 부동산 회사 2개, 꽃집 2개를 운영하면서 세키나교회의 성도들을 직원으로 활용했다. 직원의 급여가 주당 100달로 12시간 교대로 노동력 착취까지 하였다. 현재 로버트 신 목사는 세키나교회를 탈출한 성도들에게 성적, 정서적, 재정적 학대 혐의를 받고 소송 중에 있다.

로버트 신 목사의 논란 중 눈여겨볼 것은 성경 메시지의 조작이다.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죽는 것은 가족을 살리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과정이라고 세뇌시켰다. 그 교리에 의해 미란다는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결혼까지 하였다. CNN에 따르면 로버트 신 목사는 전직 교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한 상태이다. 7M 댄서 중 3명은 신 목사와 그의 부인,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며 사기, 강제노동, 인신매매, 성폭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에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된 이번 사건은 한인 기독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이비종교는 돈과 연관이 있다.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고전적인 방법은 교주의 신격화다. 그러나 요즘 사이비종교는 시대의 문화를 활용하여 자금을 끌어 모은다. 요즘 청소년들은 티톡, 쇼츠와 같은 1분 남짓 영상을 취미로 올리기도 하지만 팔로우가 늘어나면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와 같은 문화 현상을 이용해 신 목사는 교회와 7M 연예 매니지먼트를 설립해 새로운 사이비종교의 틀을 완성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고후 11:4).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무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의 사이비 현상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 경고 속에 답이 있다.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더욱 선명해졌다.

www.epipodo.com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16)520-2004 www.gcnyk.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718)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 6:00(토)
Tel.(516)387-9940, 9942(EM), www.cpcof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청년부 예배: 오후 12:0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00
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
Tel. (718)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 벽 예 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
Tel.(718)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c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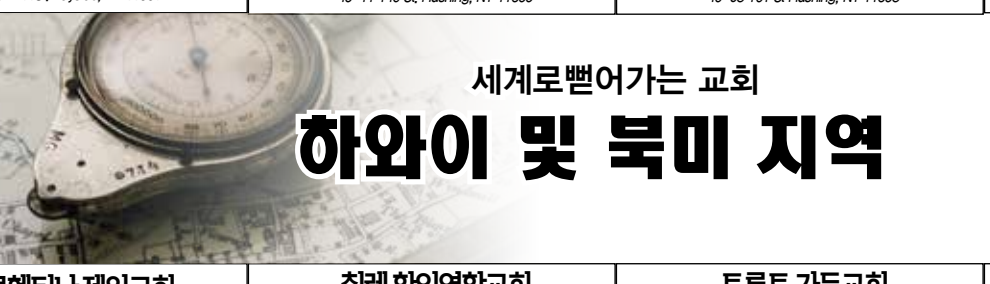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오전6:00
Tel.(845) 359-145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6:00
Tel.(718)886-4040,www.kapcq.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자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성도가 사모해야 할 성령의 충만과 은사

내가 학생부 전도사였을 때 수련회에서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난 것이 생각난다. 나는 처음으로 학생들을 수련회에 데리고 갔는데 학생들과 함께 통성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방언이 터지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을 중지하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저 그 이상한 소리 내는 방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방언을 주시려면 제가 말할 때 다른 나라 말로 들리거나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오순절 날 사도들이 했던 방언을 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렸다. "너는 내가 주는 은사를 왜 마다하느냐? 내가 주는 은사는 다 좋은 것이니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러면 주시지요!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내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방언하게 되었는데 그날 신기한 일은 내가 그렇게 방언을 받고 옆에 아이들을 둘러보니 다 방언이 터지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큰일 났다! 우리 교회는 방언하면 안 되는 교회인데 방언이 터졌으니 어떻게 하나!"고 생각하면서 아이들과 약속하기를 방언 받았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을 일이었다. 누구는 방언을 받고 싶어 그렇게 애걸하는데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방언을 받아 놓고 쉬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을 필요가 있다. 주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역사를 아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게 일하기 위하여 은사도 주신다는 것을 믿는가? 그 은사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믿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전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여야 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하겠다. 나의 능력을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어떻게 받는가? 성경을 보면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린도 전서 12: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시도록 구하여야 하겠다. 오순절 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은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사를 권능 있게 사용하여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음 받아 은사를 통해 권능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장경호 목사
(Only One Church)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현대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세요

마태복음 5:3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행복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얻는 복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물질의 가난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질이 가난하면서도 마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물질은 부유하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라고 불리우는 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한 무명의 나사렛 청년이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음을 던질 만큼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들 때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모실 만큼 그 또한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빌레몬은 골로새 도시에서 부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신앙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을 만큼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둘째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지가 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놀라며, 매사에 부정적이며, 옹졸한 사람을 연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셋째로, 가난한 마음은 외식하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꾸민 겸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은 외식입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가난한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참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에 대한 예로 성 어거스틴의 예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첫째는 겸손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무엇인가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다"

제자는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와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누구든지 이 교만의 죄를 짓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사람마다 저 잘난 재미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본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에 비추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며, 다른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와서 얼굴을 들고 아마도 두 손까지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기는 나는 토색도 한 일이 없고, 불의한 일을 하는 일도 없고 간음을 한 일도 없고 또한 저기 앉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을 드렸고 모든 얻은 바의 십일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성전에 들어왔지만, 감히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오직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의 죄인 됨을 발견하는 철저한 죄인의 인식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가난'이란 말의 뜻은 프로코스 πτωχοι 란 단어로 '철저하게 가난하다'라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가난을 뜻합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자비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철저한 가난으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다 문자 그대로 거지입니다. 우리는 벗은 몸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무엇을 가졌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느냐 하면 내게 있는 게 없으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있는 것 때문에 또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드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에서 있어서 나오는 것들이 더 더럽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죄악을 인식하는 자기 인식에서부터 가난한 마음은 시작됩니다.

가난한 마음은 치료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상태는 발견하였지만,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보잘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며 우리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그 기대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몰래 숨어서 보잘 것 없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아이고 주님, 뭔가 착각하셨겠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대입니다.

예전에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가난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자 응답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주의 손길 대신에 자기 의로 굳어진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치유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모시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또한, 나는 내 이웃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또한 이웃들 모두를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잘 받아들이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알고 단점도 압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된 복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그 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곳에서 역사하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곳에 사단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사단이 그곳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사단이 그곳을 다스릴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현대인)

chkho69@gmail.com

은혜와 감사, 오직 주님

2003년 6월 15일에 교회가 개척되어, 지난주 교회 탄생 21주년 생일잔치를 했다. 한국과 미국 이곳저곳에서 많은 축하 메세지를 보내주셨다. 이민 목회 20년에 대해 많은 분이 칭찬하며, 인사말에 내 이름을 자주 언급해 주셨다. 많이 수고했다는 인사였는데, 무척 어색한 마음이 들었다. 21년 동안 누가 제일 수고하고 헌신했을까? 아직도 교회의 장로로 남아 수고를 다 하는 개척 멤버들도 있지만, 사람이 받을 칭찬은 못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데리고 21년을 함께하신 하나님의 수고 외에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면 21년을 한결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와 헌신(?)에 한마디 고백의 말은 이것뿐인 듯하다. "받은 것은 은혜요, 드릴 것은 감사뿐이라!!"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에 비하면 20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33살 인생의 초년병 같은 시기에 시작된 이민교회의 개척과 그로부터 20년 세월은 쉽지 않은 시간 들로 기억된다. 가끔 누가 묻는다. 어떻게 이민자들이 많지도 않은 곳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냐? 조금 우스꽝스러운 답일지 모르지만, '어쩌다가'가 정답이라고 말해주었다. 아무런 계획도 생각도 없었다. 졸업하고 곧 비워 주어야 될 신학교 기숙사 거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개척을 위한 후원을 단 한 군데도 신청하거나 받지를 않았고, 개척한 후에는 비행기 통학을 1년 동안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매주 왕복했던 것을 보면, 정말 대책 없는 개척이었던 것 같다. 게다가 미국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면 새벽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 미국교회를 들어가지 않고 오피스 빌딩을 렌트해서 시작하게 된 것도, 지나보면 아무 대책이 없는,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를 일이었다.

대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뭘 모르고 덤비는(?) 대책없는 목사의 친히 대책이 되어 주셨다. 재정적 어려움 없이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셨고, 지난 21년 동안 한 교회에서 꾸준히 목회하도록 하셨고, 이민 목회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주안에서 평안을 지켜내게 하셨던 것이다. 작은 도시에서, 지역 이민교회 역사상 아름다운 부흥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도 하셨다. 우리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한다. 숫자는 묻지 말라면서, 우리 교회가 알칸사 주에서 제일 큰 교회이고, 도시 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남쪽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기에 알칸사의 강남교회라고 말을 한다. 한인 인구가 2천 명 뿐이니 숫자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될 일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밖에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았다. 그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21년을 한순간처럼 떠올리며 생각해 본다. 너무 소심하고 유약해서, 조금만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몸을 부르르 떨다가 잠을 청하기도 했던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한 교회에서 21년간 부족하기 그지없는 종이 목회현장을 지킬 수 있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열매의 경중을 떠나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오직 은혜였다. 그리고 그 은혜의 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니,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 마룻바닥 냄새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 작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셨음인 것 같았다. 이 부분을 생각만 해도, 지금도 뭉클한 눈물이 올라온다. 엄청난 세월을 목회하신 선배님들에 비하면 작은 티끌 같은 일이겠지만, 작은 아이의 마음을 가진 못난 종에게는 21년 세월이 오직 하나의 고백으로 갈무리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은혜요, 드릴 것은 감사뿐이라'

다시 본질 속으로, 예배회복

이제는 눈을 감고 다시 다가올 새로운 20년, 아니 은퇴까지 16년의 세월을 짐작해 본다.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한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은혜와 감사'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친히 대책이 되어 주시는 목회'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를 열어감에 있어 현실적인 미혹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무엇보다 본질을 떠나 현상에 치우친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인들은 본질로의 개혁과 회복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성경의 본질보다 인본주의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비신앙적 현상만 추구해 가고 있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많아졌다.

본질을 떠난 교회와 신앙인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경의 진리를 거슬리게 되어 총체적 오염과 변질로 빛과 맛을 상실하게 되며 명령하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교회로서 성직자가 성직자로서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 나아가 인류 역사는 죄악으로 만연하게 되어 처절한 고통과 좌절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미래와 문제극복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축복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특별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축복 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이다. 인간은 죄악으로 이 모든 존재가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고 경배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본질을 떠난 채, 인본주의적 현상을 추구하는 교회와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성경 중심의 본질로 개혁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극복되고 긴장되어야 할 내용 다섯 가지를 적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이를 회복할 때, 모든 교회의 미래는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다.

1. 물질주의

미래교회가 가장 주의할 것이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문제이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방 신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알 신은 세상의 신, 물질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한다. 인생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통로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돈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도 많아지고, 결국은 돈이 자신을 찔러 죽이는 칼이 될 것을 말씀한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다. 결론은 패망에 이르게 될 따름이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결국 돈 때문에 망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말씀의 진리도 깨달을 수 없다.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2. 개인주의

미래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심화 되어 공동체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도 전화기 한 대로, 홀로(族)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무리와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홀로 외톨이로 있으면서 은밀하게 예수를 팔아버렸다. 하와는 아담과 떨어져 홀로 있으면서 뱀의 유혹을 받았다. 무리에서 떨어져 있을 때, 사자의 밥이 되듯이 사단의 시험에 들기 쉽다. 성경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함께 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기에 바쁜 교회가 될 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한다.

3. 혼합주의

혼합주의 사상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진리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오늘날 진리가 예수뿐이냐고 묻는다? 산꼭대기에 이르는 길이 이곳뿐인가? 많지 않은가? 라며 항변한다. 그러나 그것은 산에 오를 때만 가능한 이야기일 뿐 천국가는 길과 다르다, 천국은 외길이다. 예수의 길 외에는 천국에 이를 길이 없다.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용과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호주의 힐송 처치는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예배드리도록 자기들만의 동아리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제한받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지금은 변화의 의지 없이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렸다. 교회 이름이 한자로 참 좋다. 가르칠 교(教)에 모일 회(會)자를 쓴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진리를 가르쳐, 죄를 분별하여 마침내 삶을 변화시키는 곳이다. 불편해도 가르쳐야 한다. 변화되지 않아도, 변화될 가능성이라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편리주의

귀차니즘의 시대가 도래했다. 불편한 것을 싫어한다. 굳이 몸을 움직여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며 인터넷 처치를 선호하고 AI 목사가 등장하는 시대를 환호한다. 앞으로 문명의 발달은 더욱 신앙의 편리주의를 추구할 것이라 여겨진다. 성경은 말한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몸을 움직여 예배하라고 말한다.

참 신앙은 영적 게으름과의 전쟁에서 시작된다. 신앙은 편한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은혜 속에 누리는 것이다. 수십 권의 신앙 서적과 수백 편의 말씀 영상보다 운명적으로 연결해주신 로컬처치 예배당의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하늘의 복을 예비해 주신다. 예수님도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 장소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면, 서서히 영이 죽게 되어 있다. 신앙생활은 편리하게 하는 것 아니다. 바쁠 때 실력이 나타나고 훈련되어 자라게 된다.

5. 소비자 중심주의

교회 사역을 성도들의 삶의 형편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얼마 전 모 교단총회에 오신 강사분들 강연의 대부분이 지금의 세태에 대한 현상적 연구였다고 한다. 여러 가지 도표와 자료를 통해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마디로, 성도 없는 교회가 어디 있나? 하는 오늘날의 형편을 반영한 이상한 말이다. 그런데 그곳에 참여한 목사님은 가만히 듣다 보니 본질이 흔들리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성도를 소비자처럼 여기면서, 소비자를 위한다는 방식으로 교회가 성도들의 형편과 입맛에 맞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려진 것이다. 강의를 들으며 드는 생각이, "그러면 교회는 뭐고? 목회는 뭐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그렇게 모임을 마치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 보니, 다시 은혜의 본질 외에는 답이 없더라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 외엔 거룩해질 것이 없고, 인물을 못 만들겠더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교회는 소비자 중심. 교인 중심이 아닌 오직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뿐임을 알아야 한다. 왜 교회 사역이 소비자 중심주의가 되면 안 되나? 교회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해 보자.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게 복인가? 아니면 기도대로 다 응답 안 되는 게 복인가? 성숙한 성도는 후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이다. 내 뜻과 형편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복이 아니다. 힘들어도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

미래교회와 복된 성도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 홀로 족(族)을 지향하는 개인주의, 진리를 왜곡하는 혼합주의, 평안이 아닌 편안을 추구하는 편리 주의, 신앙을 자기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소비자 중심주의를 이기며 마치 물을 거스르는 것처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때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사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음을 보게 된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사명

-물질주의, 개인주의, 혼합주의, 편리주의, 소비자 중심주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씰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6월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김일성 공산주의자인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의 공산주의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요즈음 현대판 공산주의는 어떤 모습을 띠고 한국과 미국에 도전해 오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한국에서 김의정 목사

현대판 공산주의

A: 좋은 질문입니다. 현대판 공산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출현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자본가인 부르주아와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간격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독일의 칼 마르크스와 영국의 엥겔스가 일어나 1948년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폭력으로 부르조아를 타도하자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 했는데 결과는 유토피아가 아닌 거지 토피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의 후루시 초프와 고르바초프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공산주의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의 기본 신조는 유물론에 근거한 무신론 사상이며 종교와 천국은 아편이라며 반기독교적이며 교회 파괴와 말살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공산주의는 칼 막스의 막시즘(Marxism)에 휴머니즘과 문화를 변형시켜 신 주의(Neo-Marxism), 네오 막시즘이라 부릅니다.

첫째 과거 공산주의가 후진 농업중심의 노동국가였던 러시아에서는 성공하는 듯했으나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과 서구의 자본주의 선진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이론이 먹혀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사상적 뿌리 속에는 성경에 기반을 둔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공산주의가 서구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통적인 지배 권위가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에 뿌리를 둔 교회로 보고 기독교를 공산주의의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기독교 해체를 지상명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북한의 김일성은 베트남은 적화되는데 왜 남한은 안되는가? 남한의 교회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세를 1/10로 줄이는 전략 50개의 대형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둘째, 과거 정통 막시즘은 공산혁명을 노동자 농민 등 소위 하층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노동자) 계급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나라를 전복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유럽과 미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Cramsci, 1891-1937)는 이탈리아에서 공산혁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문화 마르크스주의(cultural maxism)를 주창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좌익 공산주의입니다. 현대판 공산주의 지성인, 즉 엘리트들을 사법부, 교육부, 언론, 정치 및 예술, 교회 등 상부 구조 기관들에 진지를 치고 서서히 장악하는 방법을 통한 긴 행진, 즉 '조용한 혁명'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현대판 공산주의는 기존 막시즘에다 휴머니즘의 옷을 입혀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중시하고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동성애를 인권(human rights)운동으로 사회 운동화하고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 기독교 가치에 대적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머니즘의 명목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들고나오면서 동성애자들을 혁명의 전위부대(avant garde)로 동원합니다. 극단적 반기독교 동성애자들을 앞장세워 젠더(gender) 이데올로기를 성 정치화하여 네오마르크스주의 문화 혁명(Cultura Revolution)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무슬림들의 종교 행사"

30일간 라마단 금식이 끝난 무슬림들은 그들의 최대 명절인 'Idulfitri'가 시작됩니다. 금식 기간에는 해뜨기 전에 온 가족이 식사를 마쳐야 하고 해가 떠 있을 때에 금식하다가 하루 해가 지고 나면 또 식사하는 번거로운 일상입니다. 사실 이때는 낮 동안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식품 매출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간이 끝나면 축제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금식이 해제되는 날 저녁에는 길거리마다 밖에 나와서 폭죽을 터트리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축하하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보통 대명절(Hari Raya)이라고 부르는 이 때는 고향 방문, 친지들과의 모임, 지인들이나 친구들과의 파티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마다 특별 보너스를 받고 새 옷으로 차려입고 아는 사람들과 만나서 계속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전국적인 이동이 시작되어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다양한 모임들이 지속됩니다.

최대 명절이 마치는 한달 후에는 그들의 종교 행사인 희생제 (IdulIda)가 치러집니다.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게 소나 양, 염소가 희생제물로 알라에게 드려지게 되며 각 시, 도별로 모스크 앞 뜰에서 무슬림 이맘(지도자)에 의해서 목이 베어집니다.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죄가 사해진다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바친 사람들에게 지난 일 년간의 죄를 사한다는 선포를 하고 희생제물이 된 고기는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일 년 뒤에 죄사함을 받을 희망을 가지고 또 죄악된 삶의 쳇바퀴를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구약 제사와 아주 흡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도 구약의 제사와 동일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탄이 성경의 제사제도를 베끼고 어둠 속에서 헤매도록 하고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려는 성경의 의도와는 무관한 사탄의 속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무슬림들을 보면서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모른 채 껍데기만 가지고 열심을 내는 이들에게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물론 진리는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깨달음을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마음이 간절하며 무슬림을 위한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늘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아는데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LA 대형 산불… 하룻새 여의도 면적 10배 넘게 태워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약 50㎢ 면적을 태웠고 주민 1200명이 대피했다. 이번 산불은 '포스트 파이어(Post Fire)'라고 불린다. CNN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포스트 파이어'가 하루 만에 1만2200에이커(약 50㎢)를 태웠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에 따르면 16일 정오 기준 포스트 파이어는 2%밖에 진화되지 않았다. 현재 400명의 인력과 소방차 70대, 불도저 2대가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됐다. LA 카운티 소방 당국은 상가 건물 2채가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립기상청 LA 지부는 LA 카운티의 I-5 회랑과 벤투라 카운티 산악 지대에 17일 오후 5시까지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불길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산불은 지난 15일 오후 1시45분쯤 LA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 떨어진 고먼 근처에서 발화됐다. 이후 피라미드 호수가 있는 동남쪽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주립공원은 산불 위험 지역인 헝그리 밸리에서 주민 1200명을 대피시키고 피라미드 호수를 폐쇄하기도 했다.

석유 400톤 유출, 기름 범벅된 싱가포르…해변 추가 폐쇄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남부 항구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 사고로 유출된 석유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방제 작업을 위해 세인트존스, 라자루스, 쿠수 등 남부 섬 3곳 해변을 추가로 폐쇄한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이스트코스트 파크, 래브라도 자연보호구역 등의 해안을 폐쇄했다.

지난 14일 파시르 판장 항구에서 네덜란드 국적 준설선 '복스막시마'호가 정박해 있던 싱가포르 유조선 '마린아너'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미린아너호의 화물 탱크 중 하나가 파열돼 저유황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기름은 센토사섬 등 주요 해변으로 퍼져나갔고, 악취와 함께 바다를 검게 물들였다. MPA는 "사고로 석유 약 400톤이 유출됐으며, 일부가 조류를 따라 남부 해안으로 퍼졌다"고 밝혔다.

사고 이유에 대해선 "준설선 엔진과 조향장치에 사고 직전 갑작스럽게 이상이 생겨 사고를 일으켰다"며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전문 인력 250여명, 자원봉사자 1500명을 동원해 바다와 해변에 유출된 석유를 제거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석유가 더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회수기를 사용해 기름을 걷어 올리고 있다.

MPA는 이번 사고로 항행 안전이나 정박 작업 등에는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식품청(SFA)은 양식장의 피해는 없다며 현지 수산물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美텍사스 노예해방 기념 축제서 '탕탕'… 2명 사망

미국 텍사스주의 한 공원에서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 도중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어린이들을 포함해 최소 6명이 다쳤다. 축제에 참여한 무리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주변 이들까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텍사스주 오스틴 북쪽에 있는 도시 라운드록의 한 공원에서 준틴스(Juneteenth·노예해방 기념일) 축하 행사가 열리던 중 총격이 발생했다.

총에 맞은 2명이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여러 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부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소방 당국이 엑스(X)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성인 4명과 어린이 2명이 지역의 외상 치료 시설로 이송됐다. 경찰은 행사장 내 두 무리 사이에 벌어진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총격으로 번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격으로 희생된 2명은 말다툼을 벌인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앨런 뱅크스 경찰서장은 "저녁을 즐기러 나온 한 가족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누군가로 인해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됐다"며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준틴스는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에서 마지막 노예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파리 오지 마세요" 올림픽 보이콧하는 파리지앵

2024 파리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 일부 시민이 "파리에 오지 말라"며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관광객 쇄도로 물가가 더욱 오르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올림픽 기간 파리를 방문하면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영상이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에서 다수 공유되고 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오 노라'라는 닉네임으로 틱톡에 동영상을 올린 24세 현지 대학생은 "올림픽을 보러 파리에 올 계획이라면 오지 말라"며 이번 올림픽 기간 파리는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리에 사는 프랑스계 미국인 역시 지난해 11월 틱톡에 올린 영상에서 "오지 마라. 몽땅 취소하라"며 "누구도 올림픽을 원치 않는다. 이건 엉망진창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러한 영상 일부는 수만회에서 많게는 100만회 이상 재생됐다고 NYT는 전했다.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 개최지 주민이 이처럼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정작 현지인의 삶이 팍팍해지는 데 대한 걱정과 불만이 깔려 있다. 파리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과 행사 관계자가 몰려들면서 물가가 뛰고 숙소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틱톡에 올라온 보이콧 영상 중에는 올림픽 기간 숙박 요금과 지하철 요금이 거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뛰는 것을 포함해 각종 물가가 치솟을 움직임을 보이는 데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NYT는 이밖에도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이나 테러, 관광객을 노린 사기와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 기승을 경고하는 주민도 있다고 전했다.

'中남부 덮친 폭우' …선전서 600년 된 명나라 성벽 붕괴

중국 남부에 폭우가 덮치면서 광둥성 선전의 유서 깊은 명승지인 다펑쑤청 성벽 일부가 무너졌다. 중국 북부가 이상고온과 가뭄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남부에선 폭우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16일 중국 언론 진타이쯔쉰 등에 따르면 선전시 다펑신구 비상관리국은 수일간 계속된 폭우의 영향으로 15일 오후 4시쯤 다펑쑤청 남문 성벽 일부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한 결과 다치거나 매몰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강풍과 비로 인해 관광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붕괴 현장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관련 전문가와 문화재 전문가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펑쑤청은 광둥성에서 드문 대형 고건축으로 선전의 8대 명소 중 하나다. 명 태조 때인 홍무 27년(1394년)에 건설돼 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중국 남부 해안을 방어하는 기지 역할을 했다. 남문 동문 서문과 민가, 골목 등이 옛 모습대로 보존돼 있다. 2001년 다섯 번째 국가 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됐다.

日 히메지성 외국인 입장료 4배 오른다

일본의 세계유산 중 하나인 효고현 히메지성(사진)의 외국인 입장료가 4배 인상될 전망이다. 일본 각지에서는 기록적 엔저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이중가격제, 노상 음주 금지 등 외국인 대상 규제가 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16일 기요모토 히데야스 히메지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히메지성 입장료 4배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000엔(8800원)인 성인 입장료가 4배 오르면 3만5000원 수준이 된다. 늘어나는 수입은 히메지성 보수나 오버투어리즘 대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도쿄 곳곳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요금을 차등화하는 식당이 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내에서 이중가격제가 확산되는 중이다.

도쿄 시부야구 의회에선 이날 거리·공공장소 야간 음주 금지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외국인 관광객 등의 노상 음주로 골머리를 앓던 시부야구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올해 단속된 인원의 70%가 외국인이었다. 조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가 유력하다. 최대 환락가인 가부키초가 있는 도쿄 신주쿠구도 핼러윈 기간 노상 음주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막 부임했는가?

〈2면에서 계속〉

3. 당신이 신실한 인내를 보이는 데 필요한 시간

시간이 지나도 신실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1:3-5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내용의 핵심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권면한다.

첫 번째, '있는 곳에 머무르라'이다(3절). 배가 가라앉는 거 같아도 포기하면 안 된다. 쉼 없이 닥치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떠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버티라. 교인들에게는 일관성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

둘째, '사랑하라'이다(5절).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사랑이 표현되는 모습을 볼 시간이 필요하다. 교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당신이 단지 월급 때문에 사역하는 고용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어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 '신실하게 목양하라'이다(3-4절). 편지의 나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건전한 교리와 신실한 목양에 헌신하라는 명령을 준다. 하나님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이 당신을 빚어가는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이 안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겸손한 종이 될 때, 우리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교인들 위에 군림하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인들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는 동료 형제임을 보여준다(고후 1:24). 우리는 약함 속에서도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후 12:9). 우리는 교인들에게 필요한 똑같은 복음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

당신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교인들이 하나님만을 찾는 당신의 모습을 목격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사역하라. 필요할 때 회개하라. 잘못을 인정하고 항상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하라. 은혜의 복음에 비추어 생활하라. 당신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라.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교인들의 영혼에 각인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신뢰를 받는 목자로 우뚝 설 것이다. 교인들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교인들은 당신을 빚어 위대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그들의 목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할 것이다.

by Jon Hawkins, TGC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93. 장영환(1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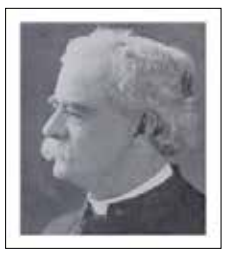
장영환은 1863년경에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났다. 39세가 되던 1902년에 경기도 이천에서 감리교 선교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아내를 잃고 홀아비가 된 40세의 장영환은 단신으로 제물포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가 1903년 12월 7일에 나가사키에서 '시베리아호'를 타고 그달 28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장영환은 하와이에 도착한 후 Chang Young Whan 또는 Chang Young W으로 통했다. 호놀룰루에 도착한 장영환은 가와이섬 기알리아 농장으로 이동하였다가 더 나은 노동조건에 따라 같은 섬의 길 나위아를 거쳐 마위섬의 스프레클스빌로 이주했다.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 권사

1908년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감독 데이비드 H. 무어 목사의 사회로 미국 북감리교 제3회 하와이선교연회가 개최되었다. 그해 감리사는 존 W. 와드만 목사였다. 그해 하와이 선교연회 내에 한국인 목사로는 홍치범, 이지성, 신판석, 민찬호, 김영식, 김이제 그리고 김유순이 있었고, 한인감리교회는 총 28개 교회가 있었으며, 이중 마위섬에는 한인감리교회가 라하이나, 하나, 기파후루, 스프레클스빌과 하마구아포고 등 5곳에 있었다.

장영환은 1908년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마위섬 스프레클스빌에 있는 한인감리교회의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가 하와이에 이주한 지 5년이 되던 해였다. 이 연회에서 이 교회의 목사로 홍치범이 파송 받았는데 그는 하마구아포고 한인감리교회까지 담당하는 순회 선교목사였다. 그래서 자연히 장영환의 사역이 많았다.

장영환이 파송되던 1908년 보고에 따르면 스프레클스빌 한인 감리교회에는 세례교인이 9명, 학습교인이 16명, 유아세례교인이 1명이었고, 주일학교는 두 곳에 있었고, 4명의 교사와 직원이 있었으며 등록 학생은 30명이었는데 평균 출석도 같은 수인 30명이었으며, 주일학교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7명이 개종했다. 상회비로 11달러를 헌금하였는데 내역으로 보면 선교비로 8달러를 헌금하였는데 해외선교부에 3달러, 내지 선교부에 5달러였고, 교육비로 학생보조를 위한 어린이 기금으로 1달러를 헌금했으며, 그 외 부인내지선교회에 1달러 그리고 총회 경비로 1달러를 헌금하였다. 예배당과 사택이 있었는데 이들 건물을 고치는데 280달러를 지출했고, 이들 건물 구매때 융자한 금액 중 50달러를 지불했다.



데이비드 H. 무어 감독

1년 후 보고된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의 사역 보고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례교인이 22명이 늘었고, 학습교인이 17명이 늘었고, 유아세례교인이 7명이 늘었고, 주일학교수는 같았지만 교사와 직원이 5명이 늘었으며 등록 학생은 20명이 늘었는데 평균 출석도 10명이 늘었으며, 주일학교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14명이 개종했다. 상회비로 8달러를 더 헌금하였는데 명세로 보면 선교비로 2달러를 더 헌금하였는데 해외선교부에 2달러가 적었고, 내지 선교부에 1달러가 적었지만, 해외선교 주일학교와 내지선교 주일학교에 각각 1달러와 2달러를 새로 헌금하였다. 교육비로 학생보조를 위한 어린이 기금으로 1달러를 더 헌금했으며,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일반 교육비로 1달러를 새로 헌금하였으며, 그 외 부인내지선교회에 2달러를 더 헌금하였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흑인 보조회와 미국 성서공회에 각각 1달러씩 헌금하였다. 예배당과 사택이 있었는데 이들 건물과 건물의 개조를 위하여 지출하지 않았고, 융자 금액을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배당은 당시 시가로 750달러였다.

하나 한인감리교회 권사

1909년에는 찰스 W. 스미스 박사가 하와이 선교연회 감독으로 부임하였다. 그해 3월 3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그의 사회로 제4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있었다. 그 연회에서 장영환은 마위섬 하나에 있는 한인감리교회의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파송을 받았을 때 본 교회의 명단 자체가 없었고, 연회 중 하나 한인감리교회 목사를 파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새로 개척할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듬해 하와이 선교연회록에 마위섬 하나 한인감리교회 보고가 없었다. 홍치범이 스프레클스빌과 기파후루뿐만 아니라 하나로도 파송된 것으로 보아 스프레클스빌 한인감리교회 보고에 하나 한인감리교회 보고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확인할 수 없다.

1909년의 하와이 선교연회는 장영환을 파송하지 않았고, 그 이후 당분간 그의 이름은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찾아볼 수 없다.

'조선에 영웅이 있는가"

그런데 장영환의 이름이 신한민보에 나타난다. 하와이섬 학갈라우에 거주하던 장영환은 1932년 5월 12일에 신한민보에 '조선에 영웅이 있는가'라는 제하의 아래의 글을 기고하면서 일본 제국으로 부터 탄압받는 조국을 일으킬 을지문득과 이순신 같은 영웅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조국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아래의 글로 표현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었다.

"지금 동양 천지에 풍운이 자욱한 이때 영웅이 나올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어 자로 말하려 한다. 대체 경쟁 시대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 제도와 사회 조직과 인류 보호가 모두 무력으로 뻗어 나아가는 이때 폭발탄, 비행기, 잠행정[잠수함], 구축함 같은 군용물이 구비하여 소약민족[약소민족]을 마구 무너뜨리는 이때 소약민족[약소민족]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중에 우리 조선 민족이 더욱 잘못할 학대와 압박하에 있도다. 슬프다. 삼천리강산에 2천3백만 민족 중에 영웅이 나설까 안 나설까 한번 상상하여 볼 것이다. 고구려 시대 을지문덕 같은 영웅이 재생하였으면 어떨까? 임진왜란 시에 이충무공 같은 명장과 김덕량 같은 용장이 부생하였으면 어떠할까? 거북선을 창조하신 이충무공이 다시 탄생한다면 그때 그와 같이 신기하게 보이던 거북선보다 우승한 무엇을 새로 발명하여 지금 사용하는 비행기, 잠행정, 폭발탄 등속을 모조리 휩쓸어 버리고 임진왜란에 왜놈을 소멸하던 장절 쾌절한 일을 다시금 보게 될는지 누가 예언할 수 있는가? 오호라! 동반도 화려강산에 제세 영웅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에는 영웅이 있더라도 그 민중이 합하지 못하면 영웅이라도 속수무책일 것 같다. 아무려면 영웅이 나기만 하면 그 지도하에 민중이 자연 합심 될 것이라 할 듯하며, 민중이 합심 못 되는 것은 영웅이 없는 탓이라고 할 듯하다마는 우리 하와이 한인사회에는 '영웅'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저마다 영웅 같아 보이며, 영웅 노릇을 제법 하려고 든다. 민중을 합하기는커녕 민중을 분리하게 시키는 것이 우리 하와이 '영웅들'의 사업이다. 이것이 비평 같지만, 사실인데야 어찌하나? 10여 성상 하와이 역사를 돌아보면 배고픈 우리가 1원, 2원, 10원 또는 백 원까지 독립운동을 위하여 냈지마는 남은 것은 교회나 사회에 분열뿐이니 참 한심하다. 중국의 6조5계 시대와 같이 하와이에는 영웅이 많기 때문에 그 백성 그 회원을 그대로 두고 단체 이름 고치는데 맥 빠지고 말았다.

조선에 참 영웅이 있는가? 만주 평야에 풍진이 자욱하고 상해 천지에 폭탄이 굉렬하거늘 영웅이 있다면 초당 춘일에 꿈만 꾸고 있을까? 깊은 바위 구멍에서 낮잠 자고 있을까? 영웅아! 기회가 왔다 나오너라. 조선에 일이 났다. 만주에 전쟁이 계속된다. 우리 독립군이 일어나서 중국 의용병과 연합하여 왜놈과 싸운다. 동시에 백만 명의 재만 동포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사망선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 미[미국], 포[하와이], 묵[멕시코], 큐[큐바]에 있는 우리는 결사대를 두어 가지고 만주 평야에 가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할망정 우리의 능력을 다하여 국가사업을 응원하는 것이 참 영웅이오, 참 호걸이다. 만일 우리가 다 합심만 하면 세상에 못 할 일이 없고 안될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영웅 숭배 주의에 두통이 난 자이다. 어제 날에 영웅으로 섬기다가도 오늘에 발길로 툭 차내 버리며, 작년에 영웅 노릇을 제법 하던 이도 금년에 낙오자가 되고 마는 영웅 주의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은 오늘과 같이 기회가 좋은 때에도 합력 공작을 할 수 없이 된 것 같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지휘하는 대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할 줄 안다. 오호라! 참 영웅이 이때 있는가? 있거든 독립 전선으로 나올지어다. 만주로 갈지어다. 거기에는 문병도 있고, 무기도 있고, 기회도 있도다. 산에 가야만 범을 잡을 수 있고, 바다에 가야만 고래를 잡을 수 있나니라. 밥상머리에 앉아서 발버둥을 치며 집안의 불화를 가끔 빚어내는 어린 영웅들! 중국의 장개석, 장학량, 풍옥상 누구누구 같은 영웅들! 저희끼리는 무섭게 싸우지만, 왜놈 앞에는 찍소리 한 마디 못하는 영웅들! 중국과 조선에는 모두 이런 종류의 영웅뿐이냐! 이런 영웅들은 모두 만주 들에 모아다가 생장이라도 해버리는 것으로 할 것 같다. 오호라! 조선에도 참 영웅이 있는가?"

학갈라우 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

장영환이 위의 글을 기고하기 3개월 전인 1932년 2월에 모인 제27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는 그를 하와이섬의 학갈라우 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로 파송했다. 학갈라우 한인감리교회 목사로 파송 받은 자는 이관묵이었는데 파팔노아, 호녹가이지, 힐로, 고나에 있는 4개처 한인감리교회도 목회하는 순회 선교목사였다. 그해 연회록에서 본 교회 교세를 찾을 수 없다.

1933년에 있었던 제28회 하와이선교연회가 마친 2달 후인 5월 21일 주일 아침에 감리사 윌리엄 H. 프라이 목사와 이관묵 목사가 동반하여 학갈나우 한인감리교회에 순회 방문하였다. 감리사가 이날 주일 아침 예배에서 설교하였고, 예배 후에 성만찬을 베풀었다. 성만찬 후 감리사는 계삭회를 열었다. 장영환은 전도사로 소개되었다. 그 외 직원은 담임 이관묵 목사, 지방 전도사 전세욱, 권사 유춘엽, 주일학교장 겸 속장 이옥산, 유사 김신우, 탁사 최봉탁, 김성만, 황수경 그리고 청년회장 최의선이었다. 이날 유사의 보고에 따르면 잔금이 8달러 20센트였다. 그달 31일 하오 7시 반에 본 예배당에서 김베드로의 사회로 소/중학교 졸업생 축하식이 있었다. 졸업생들에게 화환을 목에 걸어 축하하였고, 졸업식 뒤에 교실에 모여 다과를 나누며 즐겁게 지냈다.

장영환은 1934년과 1935년에 이어 1936년에도 이관묵 순회선교목사를 돕는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가 섬긴 마지막 해였던 1937년의 2월에 보고된 본 교회 교세와 주일학교와 재정은 아래와 같았다. 교세는 학습교인이 36명이었고, 입교교인 26명이었으며, 세례교인은 14명이었다. 주일학교 교사와 직원이 2명이었고, 주일학교에 등록한 학생이 36명이었으며, 엡워스 고등부 학생이 16명이었다. 재정보고에서 교회 지출이 14달러였고, 목사 사례비로 30달러를 헌금하였으며, 지역 후원비가 44달러였고, 세계 봉사회에 10달러를 헌금했다.

1937년 이후 그의 이름은 하와이 선교 연회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장영환의 선교 사역은 1908년 3월부터 1910년 3월까지와 1932년 3월부터 1937년 2월까지 7년간이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룹교제및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현장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773)8021112 estcross@yahoo.com
6050 W.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초,중,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5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 이 내용은 박홍규 목사의 번역,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인용 및 수정한 것이다.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제 11장 형식적인 기도문 사용 (3)

4. 기도문 사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들

1) 어떤 사람은 신약과 구약에 사용된 형식화된 기도문들이 있다고 하면서, 민수기의 축복의 기도(6:22-26), 다윗의 시편들, 신약의 주기도를 그 대표적인 예로 말한다.

⑴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문들이 본질상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매번 기도문을 사용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⑵ 이런 논쟁은 적어도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기도문을 사용하도록 친히 만드신 기도문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늘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없다.

⑶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난 신약의 의무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거부되었다.

⑷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은 엄밀하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로 백성을 축복하라는 것이었다.

⑸ 다윗의 시편들은 직접적인 영감으로 제작된 것이며, 그것들 중 대부분은 신비적이며, 예언적이다. 다른 모든 성경들처럼 그것들 중 오직 일부만이 찬송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다.

⑹ 신약에서 어떤 기도문이 기도의 형식으로 사용되도록 지정되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고, 증명될 수도 없다.

⑺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기도문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사용하라는 명령과 그것들을 사용해야 할 시기와 방법을 함께 제시해 보라.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가하지 않을 것이다.

⑻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누구든지 그들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기도한 것들이다. 이것들은 형식화된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자유롭게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정당성을 준다.

2) 누구든지 기도할 때 가정에서나 모임에서나 그의 기도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형식이 된다고 주징하고 이에 큰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 생각한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지,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⑵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⑶ 함께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기도할 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

⑷ 그 자체가 형식이 아닌 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형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따라야 할 형식이 되려면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는 것 이상의 권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받은 능력에 따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과 함께 그 기도를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으므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문을 만드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이 문제에 대해 중용을 지키는 척하는 사람들의 의견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형식적인 기도문 사용은 단지 기도하는 외적인 방법에 대한 것이므로 이 둘은 별개의 문제로 우리의 형편에 따라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왜 그러한가? 이는 기도를 이름만 가진 채 그 안에 아무 것도 없는 외형적인 형식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상 앞에서 기도하거나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외적인 양식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예배를 전적으로 우상숭배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외적인 예배의 양식을 준수하는 것이 곧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 사용을 통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

[나아가며]

존 오웬은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의해 검증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로마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의 형식적인 기도문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는 입장에서 글을 전개한다. 저자는 기도의 본질을 바로 알고 기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철저하게 성경의 주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신앙과 신학의 기초는 오직 성경뿐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는 위대한 개혁자의 실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성경의 계시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자연의 빛)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바로 깨닫고 이로서 우리의 이성이나 감성이 그 계시로 인해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다. 이는 은혜와 이성을 포괄하는 폭넓은 기도의 범위를 제공해 주는 작품이다. 저자는 우리의 경건생활이 철저하게 성경과 성령의 역사에 의존할 것을 강조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기도의 본질과 용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서 오신 성령님으로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엡 6:18). 오래된 타성에 젖은 신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신이 해 왔던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이 해왔던 방식은 관습이나 전통, 여러 가지 경험과 기도문과 다른 사람들의 방식에 기초한 기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며, 일종의 종교행위일 뿐이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오웬의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해 강조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과 성도들과 말씀의 사역자들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사무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결코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기도의 내용을 붙잡거나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인터넷에 넘치는 시적인 기도문이나 공공 기도문이나 인위적인 기도문들은 우리와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끼어 들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없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성경의 근거를 따라 성령의 은혜와 은사의 도우심을 받아 실제적으로 기도함이 필수적이다. 또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룬 성령의 조명에 따라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을 대하는 독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생명과 같은 요소인 기도의 실천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기도의 일군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younsuklee@hotmail.com

이영숙 박사의 성품치유 여행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답답한 순간을 이겨내는 방법

가정은 인내가 필요한 학교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 그 주제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지요. 모두 가슴에 묻어 둔 이야기와 응어리가 한 아름일 것입니다. 가정 이야기를 하나로 책 한 권은 족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인내라는 성품이 없으면 가정생활이 아주 고단하고 힘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야고보서 1:4).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명하신 것은 그분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스러운 당부이지 결코 짐이나 올무가 아닙니다. 가정을 슬픔과 고통의 장소로 만들어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 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자녀를 결혼시킬 때 이것만큼은 챙겨야 행복하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제가 가르치던 어떤 제자는 결혼할 때 엄마가 금덩어리를 녹여 주시면서 "이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급할 때 쓰라"고 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바로 부모의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구비하여 갖추어서, 누가 보더라도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가정은 인내학교입니다.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지요.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성품을 구비하지 못하고 부족해지며 허술해져서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인내의 수고가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애벌레가 오물오물 기어다닐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하면서 고달파 하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는 나를 점점 조여 오면서 숨 막히게 하는 누에고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순간을 인내로 이겨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내의 S.T.A.R 법칙을 연습하는 것이지요. 일명 별을 따는 법칙입니다.

S - Stop 잠시 하던 행동을 멈춥니다.

T - Think 자기가 하려던 행동이나 방법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집니다.

A.R - Action Right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잠시 하던 행동을 멈추고 내가 하려던 행동이 반짝반짝 빛나는지, 가장 좋은 행동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 후에 올바르게 선택해서 행동하는 인내야말로 오늘의 답답한 시기를 빛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훨훨 나는 그날이 있음을 알기에 사방에서 압박해 오는 고통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누에고치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해답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목적이 있는 시간이지요. 그것을 알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시기의 가정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편 121편 1-2절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도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길은 보통 인내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 남편이 혹은 내가 가정을 세우는 줄 알고 계속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출 때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임을 인정하고 나의 누에고치 안에서 답답함을 부둥켜안고 있으면, 언젠가 인내의 기간이 다 찬 후에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된 아름다운 가정이 찬란하게 날아오른다는 사실이 오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워도 낙심치 말고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는 끝이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인내학교는 끝이 있습니다. 졸업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졸업장을 꼭 주실 것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05
주일2부 예배 : 오전 9:05
주일3부 예배 : 오전 11:05
젊은이 예배 : 오후 2:0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2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 11:00
새 벽 기 도 회: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 오전 11:00
E M 예배 :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la.com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a-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탐구예배: 오후 6:30
Tel:(310)749-4756
실버치 리저월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2부예배:오전11:30
수 요 예 배: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 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Tel.(213)700-9928 , www.elpist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중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오후 8:00 (본당)
새 벽 예 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풍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 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9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애국적인 그리스도인"

6월은 6.25를 기억하게 되는 달입니다. 역사적 아픔을 절감하게 되고 한국인 특유의 애국심을 유발하게 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의 참상으로 인한 민족적, 국가적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크게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국토의 초토화는 극복이 된듯하지만 그 전쟁 중에 가족을 잃어버린 수많은 유족들과 그 재난을 통해 신체적 고통을 당한 이들이 수도 없이 많으며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겪는 이산가족의 슬픔, 상존하는 전쟁의 위협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 사는 많은 분들은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 하는듯한 분위기입니다. 외국에 사는 교포들은 걱정 하는 데 정작 한국에 사는 국민들은 무감각함이 참으로 의아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이 글을 한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과 국민들의 의식의 다양함을 발견하고 걱정스러운 비윤리적인 사회상과 비애국적인 국가의 현실을 나름대로 직시하면서 이 시대의 참 애국자는 누구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하는 정치가들의 행태도 결코 애국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공무원들은 물론, 신성한 교육을 집행 하는 교육 단체들도 애국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난무하는 다양한 사회단체들도 결코 애국적이지를 않은 듯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의료인들도 애국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모두들 자기 이익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를 생각하고 애국심을 확대 재생산하여, 국가와 민족의 미래 역사를 책임질까를 고민하며 생각해 보니, 이럴 때 대한민국의 애국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야 말로 참된 애국단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국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일상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적인 말이 이제는 독특한 의미의 말로 각인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애국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말로 우리 민족과 국가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매우 신앙적이면서도 애국적인 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그러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합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 하고 애통해 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쉽게 발견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도 그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초기 자유민주의 국가를 이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애국자들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애국관을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참된 애국이 무엇이며 민족의 나아갈 방향이 어떤 곳인지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현 한국적인 상황은 국가의 미래, 바람직한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건강한 국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사회 이념적으로 민족이 올바로 나아 갈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경제 윤리적으로도 국가 사회가 바르게 나아갈 목표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념과 사상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암담하고 걱정스러운 국가 상황을 직시하고 기도 하다 보면 '국가 민족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뿐임'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애국적인 그리스도인〉 이라는 개념 재설정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이제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소아적 신앙의 수준을 넘어 서야 합니다.

이제 교인들은 자기 이익 추구적인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중심적인 역사관이나 세계관을 극복하여 세계 속의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애국적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회개 하게 될 것입니다.

애국적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민족과 국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잠시 휴전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휴전의 시간이 끝이 나면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도 있다는 것이 군사적 용어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안일하게 생각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하며 우리 주변을 일깨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애국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cyd777@hotmail.com

제 2회 자기계발 미주 전 지역 청소년 성경필사 챌린지

잠언(한글/영어) 필사, 신청마감 8월 20일까지

Global Healing Art Therapy 선교회(대표 조이스 정)는 제2회 자기계발 미주 전 지역 청소년 잠언 성경필사 챌린지를 실시한다. 본 선교회는 아트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사회 환원 프로그램으로 미술을 활동을 통하여 정신 건강 웰빙을 촉진하고 정서적인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여러 미술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과, 매달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 기도회가 있으며, 매해 성경 필사 대회가 있다. 조이스 정 대표(말씀대로교회 담임목사 사모)는 "요즘 손 글씨가 많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지혜의 장 잠언을 통한 성경필사는 자녀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이라며 "성경필사와 함께 맨 뒷장에 잠언을 쓰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나 깨닫게 된 간증들의 내용을 적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에세이를 적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 열린 1회 대회는 150명의 자녀와 부모님이 참석했으며, 수많은 간증들이 나왔다. 그 간증들을 각각 육성으로 담아서 미주복음방송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코너에서 방송으로 간증이 나가기도

제2회 자기계발 잠언성경필사 챌린지

했다. 금번 제 2회 챌린지는 오는 9월8일에 전시회가 준비되며, 시상식도 같은 날 있으며 영어와 한글이 동시에 들어가도록 챌린지가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신청비용은 20불이다.

자세한 것은 (714)909-8414 (문자)이매일 : arttherapist2022@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효사랑선교회 코람데오 중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효사랑 시니어 중창단 창단 감사예배

"시니어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며 기도 한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라는 학훈으로 시니어대학을 운영하는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코람데오중창단(지휘 한진영) 창단 감사예배가 지난 11일 오전 10시 효사랑선교회 사무실에서 열었다.

김영찬 목사는 "효사랑선교회의 코람데오중창단이 창단되서 감사하다"며 "효사랑 선교회가 커뮤니티를 섬기는 시니어들이 되어 존경받는 어르신의 삶의 모습이 우리 한인교계에 신앙의 본이 되어 주님의 나라가 견고해 지고 왕성한 부흥의 성령운동으로 시니어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고 말했다.

학장 정찬군 목사의 사회로 열린 창단 감사예배는 박용일 목사의 기도와 남승우 목사(부대표) 의 설교로 진행됐다. 남승우 목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라(시 147편)'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함이 된다. 찬양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창단됐다. 찬양으로 커뮤니티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효사랑선교회 이사장 서준석 장로와 주창국 장로. ABC 교육 위원장 유수연 의원의 축사가 있은 후 남승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2부 순서로 중창단 지휘자 한진영 소개와 단원들을 소개한 후, 중창단 공연이 있었다.

효사랑선교회가 시니어 중창단을 창단하게 된 것은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함이며, 많은 합창단이 있지만 시니어들로만 구성된 중창단은 효사랑 코람데오 중창단이 처음이다. 중창단은 적은 단원이 참여할 수 있어 이동이 쉽고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시니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창단을 하게 되었다.

〈기사제공: 효사랑선교회〉

동시(童詩)

강휘생 장로(아동문학가)

'6.25 사변'

1950년 6월 25일. 고요한 새벽
갑자기 대포소리가 산과 강을 흔들었다.
북한 공산군들이 남한 땅으로 쳐들어 왔다.
민주 국가 우리 국군은 뒤로 뒤로 밀려났다.
서울을 등지고 부산까지.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남한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아주었다.
대포를 보내주고 군대도 보내 주었다.
이번엔 북한 공산군들이 압록강까지 쫓겨났다.

전쟁이 할퀴고 간 지금, 대한민국 남한은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가 되었다
공산군을 물리칠 힘도 넘치고
어려운 이웃 나라도 도와주고 있다

경력
*한국아동문학회 부회장, 자문위원장 엮임.
*한국아동문학 작가상, 한국아동문학 창작상,
박화목 아동문학상. 김영일 아동문학상 등 수상.
*저서 동화집(해를 그리는 누나), 동시집(예뻐지려고) 외 36권

〈동시: 어른이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다운 심리와 정서로 표현한 시〉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Step 2: 주문하기
Step 3: 시안확인/수정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동부교계 게시판

요셉장학재단 2024 장학생 선발

요셉장학재단(장미은 사모)은 2024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신학교 재학생 (M.Div, Th.M, D.Min, Ph.D)이며, 신청서류는 1) 목회에 대한 사명감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신앙고백문 (1장, 한영 가능) 2) 추천서 2통 (출석교회 담임목사 1통, 재학 중인 신학교 교수 1통) 3) 재학 중인 신학교의 성적 증명서 4) 이력서 (사진포함)이다. 신청마감은 2024년 7월 13일(토)이고 신청 접수처 우편: 36-14 165th St. 3AN, Flushing, NY 11358 이메일: thejosephscholarshipfoundation@gmail.com로 하면 된다.

▲ 문의: 정기태 목사 (917-733-7387)

그레이스벧엘교회, 선교바자회

그레이스벧엘교회(담임 장학범 목사)는 6월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레이스벧엘교회 앞마당에서 선교바자회를 개최한다. 396 Broad Ave. Leonia, NJ 07605

▲ 문의: 201-242-8866

퀸즈제일교회, 황상하 목사 은퇴감사예배

퀸즈제일교회 및 KAPC 동노회 주관으로 황상하 목사 은퇴감사예배가 6월 30일(주일) 오후 5시에 퀸즈제일교회에서 열린다.

▲ 문의: 퀸즈제일교회 718-571-6368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양영자 선교사 초청 간증집회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는 6월 23일(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탁구공에 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양영자 선교사를 초청하여 간증집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229-0858

퀸즈장로교회, 전교인여름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7월 4일(목), 7월 6일(토), 7월 7일(주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주제로 윤영민 목사(대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하여 전교인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886-4040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2기 ACE Vision Network Camp" 모집

다음세대를 섬기는 ACE(사무총장 장규준 목사)에서 차세대 지도자 양성 목적으로 제2기 Vision Network Camp에 참여할 자들(만 15세~35세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1.5세 & 2세)을 총 20명 모집한다.

● 캠프 일정: 2024년 8월 1일(목)~21일(수) - 20박 21일
● 지원 마감: 2024년 7월 6일(토) 오후 11시 (동부시간)
● 캠프참가비: $3,000 / 개인 (참가자에게 $1,500 장학금 지원)

▲ 문의: 사무총장 장규준 목사 646-266-0039

뉴욕함께하는교회, 개그맨 배영만 선교사 초청 집회

국제사랑 미주동부지회 주최로 '선교를 위한 배영만 선교사 초청 간증집회'가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7월 7일(주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집회를 통해 모아진 선교 헌금은 장애우 사역(파주 박윤근 목사)과 캄보디아 고아원 사역(강은영 선교사)을 위해 사용된다.

▲ 문의: 사무총장 박시훈 목사 917-992-5200

"ARISE"에 참석한 중고등부 학생들과 목회자, 교사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퀸즈장로교회, "ARISE" 다시 일어나라!

중고등부 10년 만에 "시와 찬미의 밤" 개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중고등부 '시와 찬미의 밤' 행사가 펜데믹을 거쳐 10년 만에 'ARISE'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개최됐다. 지난 15일(토) 오후 6시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린 본 행사는 "This is my Father's World (시편 46)"라는 주제로 열려 오프닝 영상 "ARISE"으로 시작 돼, MC들의 환영으로 이어졌으며 다 함께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Irene Ahn(고등부) 학생의 대표 기도 후 한민기 전도사(영어예배 대학부 담당)가 "The Battle Hymn (시편 4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전도사는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 중에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죽음을 부활의 승리로 바꿔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자"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특별 순서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직접 연기하고, 제작한 "The Wizard of God" 쇼트필름, This is My Father's World 앙상블의 연주, "In the Sovereign Arms" 스포큰 월드 비디오, "The Prodigal" 스킷을 공연했으며 중국어 예배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작한 "CM Church Life" 영상 상영 후 Caleb Kim(중등부)과 Eldrian Malabanan(고등부)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눴다. 바디워십 팀의 공연 후 담임 김성국 목사의 자작시 "일어서라" 낭송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한민기 전도사의 인도로 헌신 다짐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 차평화 목사(교육부 담당)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제1회 향존직 사명자 컨퍼런스를 위한 간담회 후 사진 촬영했다

제1회 향존직 사명자 컨퍼런스를 위한 간담회

"사명감이 실행되는 사명으로..."

뉴욕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6월 24일부터 25일에 있을 '제1회 향존직 사명자 컨퍼런스'를 위한 간담회를 6월 18일(화) 오전 11시 플러싱 소재 산수갑산 식당에서 개최했다.

회장 황규복 장로는 "뉴욕에 흩어진 안수 받은 평신도 직분자들이 초대하여 '사명감이 실행되는 사명으로'라는 주제로 모이고자 한다"며 컨퍼런스의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첫째, 교회 부흥과 불신자 전도는 평신도들의 사명이며, 뉴욕과 같은 세계적 도시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실행하는 계기가 된다. 둘째, 세계적인 성정체성 문제에 대해 목회자들이 법적 제약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사명으로서 성경적 가르침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느끼며, 평신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한인교회는 차세대와 영어권 사역자 부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준사역자 훈련을 통해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영어권 사역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기도 제목이며 소망이다. 두드림을 들으시고 문을 열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제1회 향존직 사명자 컨퍼런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진행된다.

주제 강의와 시간, 강사는 다음과 같다. ▲실버미션의 사역가치(24일/11시/김재열 목사) ▲레크레이션(24일·25일/1시/이주수 장로)▲전도세미나(24일/2시~4시/우장환 장로)▲세계의 패권의 흐름과 대한의 부활(24일/4시/이충복 장로)▲향존직 헌신자의 헌신(24일/6시~8시/이용걸 목사)▲도시선교전략(25일/10시~12시/김호성 목사)▲유산상속 및 노후재산관리(25일/2시~4시/천일웅 변호사)▲우리 역사의 시작과 올이랑(백의) 민족(25일/4시/이충복 장로) ▲헌신자와 바울의 신앙(25일/6-8시/김남수 목사)

이번 컨퍼런스 모집인원은 선착순 120명. 참가비는 없고 식사와 선물이 준비된다. 자세한 문의는 917-204-9879, 516-375-7001로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18회 총동문회의 밤

"함께 앞장서고 뒤에서 서로 지지하는 든든한 동문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박병섭 목사)는 6월 17일(월) 오후 6시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시무)에서 제18회 총동문회의 밤을 개최했다. 대면으로 참석이 어려운 동문을 위해 라이브톡을 개설했다.

회장 박병섭 목사는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다. 각 교회와 신학교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문들은 서로 연대하여 서로 도와주며 하나가 되어 함께 앞장서고 뒤에서도 서로 지지해야 한다"고 환영 인사했다.

전행복 목사의 찬양, 회장 박병섭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정인수 목사(뉴욕좋은교회), 성경봉독 김신정 전도사(부회장), 찬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대, 설교 이원호 목사(중부뉴저지장로교회), 봉헌기도 김지희 목사(뉴저지광성교회), 격려사 노기송 목사(새예루살렘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원호 목사는 '고난 중에 있느냐? 찬송하라 (고후 1:3-9)'의 제목을 통해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그를 도왔다. 선교 현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문들을 위해 기도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난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고난을 경험한 자로서 이웃의 고난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전회장 정인수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고 동문 선교사 김재호 선교사(필리핀), 김창렬 목사(선한이웃어린이선교회), 임영건 목사(주안에교회)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이원호 목사(증경회장)는 동문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김재호 목사는 선교보고를 통해 "필리핀에서 신학교 협력사역, 치유사역, 홈리스 어린이 사역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은 특히 아픈 중에 있는 학장 김성국 목사를 위해 모두가 합심기도 한 후 이종원 목사의 축도로 1부 순서를 마쳤다. 만찬 후 전행복 목사(부서기)의 인도로 2부 순서가 진행 돼, 신입회원 소개와 다양한 게임으로 푸짐한 선물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가을학기부터 TH.M 상담학 프로그램을 좋은 교수진과 함께 개설하며, 고든코넬 본교와 함께 시작하는 한국어 DMIN 과정 등록이 가능하다. 고든코넬의 등록 마감일은 6월 말이다. 문의는 917-733-7387, 646-708-1101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18회 총동문회의 밤 기념 촬영했다

뉴저지목사회, 도미니카 공화국 전도집회 개최

"와 보라", 이틀간 복음화 전도 집회 진행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김종국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왔던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집회를 "와 보라"는 주제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시엔푸고스 야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선교지 대중 전도 집회는 뉴저지에서 사역했던 김학룡 선교사가 주관했으며 95도가 넘는 현지의 무더운 날씨 임에도 약 3천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 됐다.

첫째 날 집회에서 홍인석 목사(하늘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전했다.

둘째 날 집회에서 김종국 목사(뉴저지새언약교회)는 "토기장이는 자신이 빚은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깨뜨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일상이다. 성경에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토기는 우리들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뉴저지목사회는 "모든 집회가 마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남아 은혜받은 여운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미니카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12일에는 150여명의 현지 목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육민호 목사와 권기현 목사가 메시지를 나눴고, 통역은 전재덕 쿠바 선교사가 도왔다.

〈정리: 김재상 기자〉

산티아고에서 전도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주민발의안을 위한 서명운동 종결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주민발의안을 위한 서명운동 종결 감사예배

"서명운동의 역사 속에 자랑스러운 한인교회가 있었다"

주민발의안을 위한 서명운동 종결 감사예배가 14일(금)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한기홍 목사는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마5:13-16)'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55만명 유효서명을 받기위해 최선을 다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절감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서명운동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귀한 수고를 기억하실 것이다. 서명운동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교회가 본질대로 사역이 되서 교회의 본질이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더 더욱 미국사회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더 힘써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더 큰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불쏘시개가 되고 발화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운동보고에서 김사라 TVNext 대표는 영상을 통해 "이번 결과는 아쉬움이 많다. 하지만 캘리포니아가 회복되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라며 "서명운동을 위해 3만 명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10년 전 실시했던 SB48에서도 하지 못했던 40만이 넘은 서명이 모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사라 대표는 "이번 서명운동의 역사 속에 자랑스러운 한인교회가 있었으며 미전역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콜로라도를 비롯한 19개 주들이 이번 일을 모델삼아 유사한 주민발의안을 내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청년학생들의 생물학적 성별을 보호할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최성민 목사(은혜한인교회)는 "서명운동 동안 저희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특별히 한쪽귀가 들리지 않은 분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셨는지 치유집회 때 잃어버렸던 청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외에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협회장) 등 서명운동에 동참했던 목회자들의 생생한 보고가 있었다. 반면 이원석 목사(OC목사회장)는 "부에나팍 시온마켓에서 서명운동을 할 때였는데 유아기 때부터 알고 지냈던 학생이 서명을 거부하는 것에 당혹스러웠다. 그리고 저희 딸은 서명운동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서명을 하는데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서 동성애 이슈에서 어른세대와 자녀세대간 생각의 차이가 많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번일과 유사한 법안들이 올라올 때 법안을 저지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명운동보고에 이어 '캘리포니아 악법을 주께서 막아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한 뒤, 최학량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샬롬선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연합 목요예배

"풍랑을 만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욱 힘써 기도하자"

장애우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인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13일(목) 오후 5시,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홍철 목사)와 연합으로 목요예배를 드렸다.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 된 예배는 손덕수 장로(남가주든든한교회) 기도와 남가주든든한교회 중고등부학생들의 특송에 이어 김홍철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홍철 목사는 '내니, 두려워 말라'(막6:45-52)는 제목으로 "이 사건은 오병이어 직후의 사건이다. 민중들의 존중과 박수를 받을 그 시점에서 제자들을 그 자리를 떠나 벳새다로 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셨고 달려와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삶에서도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달려와 구원하실 것을 믿고 더 힘써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박모세 목사는 샬롬선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며 "올해도 해외 장애인 선교를 위한 제 46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및 생명의 양식 보내기 후원금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사역은 1999년 9월 30일 시작 돼, 현재까지 휠체어 총 13,291대와 기타 의료보조기구 약 54,882점을 지구촌 장애인 선교회로 기증, 약 68,173명의 장애인들을 섬겨왔다. 이 뜻 깊은 사역 기금마련을 위해 매년 "휠체어 사랑이야기"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후원금과 의료보조기구 등은 연중 수시로 기증 받고 있다. 본 선교회에 관한 자세한 사역은 www.shalommin.com 에서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샬롬장애인선교회 대표 박모세 목사(좌)와 말씀을 전한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 김홍철 목사(우)

김희종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성품치유세미나

"우리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 성품치유세미나가 지난 5월31일부터 6월1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이영숙 박사(굿트리USA 대표,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한국성품학회 학회장)와 김희종 박사(좋은나무성품학교 교장)가 나서 강의했다. 14일(금) 오후 7시 고창현 목사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김희종 박사가 '부모자녀 관계 치유하기'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김희종 박사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던 역사는 되돌릴 수 없다. 상처를 막고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통해 상처를 극복해낼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우리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는 자녀가 많지 않다. 그것은 우리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훈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훈계는 교정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 하지만 훈계의 초점은 미래에 대한 발전이며 지속적인 훈계는 자녀들의 좋은 습관을 만들며 진리로 하는 훈계는 자녀의 생명을 살리며 존중으로 하는 훈계는 자녀의 마음을 자라나게 한다. 성품훈계는 자녀가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도록 부모와 교사가 좋은 성품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수정하고 훈련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다음세대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은 복음과 말씀이며,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이라며 "다음세대에게 가르치는 것 중 지식은 한계가 있다. 성령께서 어려울 때에도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31일 새로운 인생 시작하기, 6월7일 내 안에 숨겨진 상처 라는 주제로 이영숙 박사가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CTS후원골프대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7회 CTS 신학대학원 후원 골프대회 열려

제7회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 이하 CTS) 후원 골프대회가 6월 12일(수) 오후 1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라미라다골프코스에서 개최됐다. 이원석 목사(OC목사회장)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골프대회는 참가자들을 24개조로 나누어 진행됐다. 심상은 학장은 "CTS는 영성과 인격을 겸비한 주의 종을 배출하기 위해 지난 36년 동안 한결 같이 헌신해왔다"라며 "오늘 저희 학교를 후원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세상을 살리는 일에 저희 CTS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소를 갈보리 선교교회로 옮긴 가운데 심상은 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골프대회 시상식은 환영사 박경준 이사장, 축사 최영봉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시상 심상은 학장, 폐회기도 안신기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문의: (714)822-7557, (714)722-4805

〈정리: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 목사회 6월 정기 예배

사우스베이 목사회 6월 정기모임이 지난 12일(수) 오전 8시 김우준 목사(토렌스 조은교회)의 사회로 열렸다. 남상권 목사(남가주어노인칭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윤목 목사가 설교 했다. 윤 목사는 "내 삶을 변화 시키는 생각"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자고 강조했다. 합심 기도의 시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와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예배 후 로스 버디스 골프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조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밀알선교단,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

밀알선교단에서는 매년 여름 남가주와 북가주, 밴쿠버, ANC GM 등 서부지역 밀알지단과 교회들이 연합하여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를 '뿌리(골 2:6-7)'라는 주제로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 캠퍼스에서 6월20일(목)-22일(토)까지 2박3일동안 개최한다.

▲ 문의: (562)229-0001

사랑의빛선교교회 장학금 수여식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 장학금 수여식이 22일(토) 오후 2시 본교회 은혜채플에서 열린다. 이날 장학금은 시드장학생 11명, 엘림장학생 9명, JTO장학생 2명이 수여받는다.

▲ 문의: (626)744-9191

LA생명의전화 상담봉사원 모집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LA생명의전화(대표 박다윗 목사)는 상담봉사원을 모집한다. 이를 위한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를 25일(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갖는다. 강사는 박다윗 목사, 원유선 신경정신과 박사, 박윤우 전 성균관대 교수, 엄성현 상담심리학 박사, 김현경 박사, 김경준 박사(이상 월드미션대), 양광옥 미주장신대 교수, 성소영 임상심리학 박사 등이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

▲ 문의: (213)480-0691, 700-6997

제2회 진명여고 합창단 공연

제2회 진명여고 합창단(단장 김미순) 공연이 22일(토) 오전 10시30분 가든스윗호텔과 23일(주일) 오전 11시 유니온교회(담임 구자민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진명 100주년 장학재단(이사장 이광자)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 마련됐다.

▲ 문의: (909)821-2477

Grace Global Vision 유튜브 컨텐츠 공모전

Grace Global Vision에서 유튜브 컨텐츠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컨텐츠 내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공모전 신청은 Grace Global Vision 웹사이트(https://graceglobalvision.com/)에서 온라인 참가신청 신청링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공모전 참가비는 Grace Global Vision 년간 회원인 경우 $100, 비회원인 경우 $200. 온라인 참가 신청 후 컨텐츠 제작을 5월-7월 기간 중에 작업을 한 후 컨텐츠 제작 관련 로그와 함께 7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Instruction(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최우수대상: 500불, 금상:300불, 은상: 200불, 동상: 100불 상금과 상장 및 기념품

▲ 문의: (949)667-0264(J. Lee, JDSN) 714-393-4595(문자가능)

KCMUSA 창립 22주년 기념 설교 쇼츠 공모전 개최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KCMUSA 이사장 민종기 목사)은 2024년 창립 22주년을 맞아 미주지역에서는 최초로 "설교 쇼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가장 엑기스(원액)를 담은 설교 쇼츠 공모 기간은 7월 1일(월)부터 31일(수)까지. 수상자 발표는 8월초에 개별 통지한다. 설교 쇼츠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며, 주제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성도"(설교 제목은 설교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됨)이다. 출품 규격은 60초미만 길이의 세로형 쇼츠 설교 영상. 시상 내역은 대상(1인) 700불, 1등(1인) 500불, 2등(1인) 300불, 참가자 전원에게는 미주한인교회사를 증정한다.

▲ 설교 쇼츠 보낼 곳과 문의: info@kcmusa.org(설교 쇼츠 담당자 앞)

선교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어린이 장난감 레고 수집

선미니스트리(대표 김정한 선교사)는 어린이 사역을 위한 레고장난감을 수집한다. 레고장난감은 총 46명(20개국)의 선교사들의 어린이 사역을 위해 사용된다. 레고장난감은 28일(금)까지 선미니스트리(6800 Orangethorpe Ave #A Buena Park, CA 90620)로 보내면 되고 레고 종류와 양은 적어도 된다.

▲ 문의: (714)350-6957

이은철 목사의 사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진 송 사무엘 목사]

감리교 원목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서 6월 정기모임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원목회) 6월 정기모임이 지난 6월 10일 남가주 주님의 교회(Bell Memorial UMC)에서 열렸다. 회장 이은철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양석용 목사의 기도, 원목회 찬양대의 찬양, 남가주 주님의 교회 최현규 담임목사의 '믿음의 발자국'이란 제목의 설교, 남성 사중창단의 특송, 정소영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7월 원목회 모임은 휴회하며 8월 모임은 야외예배로 8월 12일 오전 11시 부에나팍에 있는 랄프 클락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매년 열리는 원목회 골프대회는 9월 10일(화) 개최될 예정인데 등록은 총무 이재형 목사에게 연락해야 하며 참가비는 35달러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한·미 양국은 군사·경제동맹 넘어 영적·신앙적 동맹 관계 돼야"

새에덴교회 참전용사 18년 보은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기온은 한 여름 같았다. 15일 오전 10시 섭씨 30도를 육박하는 기온 속에서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와 교인들은 알링턴전쟁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지난해 11월 11일 미국 재향군인의 날에 맞춰 세워졌다. 2018년 미국 한국전참전용사협회 215 지부가 기념비 건립을 시작했고 2022년 국가보훈부가 이 사업을 지원하며 속도가 붙었다. 이 지역에 건립된 최초의 한국전 기념비이기도 하다.

새에덴교회는 기념비 건립을 위해 기금 일부를 지원했다. 미국 정부는 기념비에 '소강석 목사와 김종대 장로, 새에덴교회 교우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는 글을 새겨 기록으로 남겼다.기념비는 6·25전쟁에 파병한 미 육·공·해군·해병대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네 개의 비와 함께 한반도 지도에 당시 전황을 음각으로 새긴 또 다른 비가 정중앙에 병풍처럼 배치돼 있었다.

앞서 새에덴교회는 2022년 7월 준공한 미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미 한국전전사자 추모의 벽' 설립에도 힘을 보탰다. 이 추모의 벽에는 미국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함께 각인돼 있다. 미 영토 내에 한국인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첫 시설물이다.

알링턴전쟁기념공원에서의 추모식은 헌화로 시작했다. 소 목사와 예비역 장군 출신인 이교회 김종대 이철휘 서정열 장로를 비롯해 정영호 미국 휴스턴총영사가 함께 기념비에 헌화한 뒤 묵념하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소 목사는 미리 준비한 영어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서 "미국은 6·25전쟁 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13만5000여명이 피를 쏟은 혈맹의 나라다. 이 자리를 통해 양국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영적·신앙적 동맹의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UN참전국 향한 감사, 71년 흘러도 여전히 빛나"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한국교회 군선교대회 열어

"72년 전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김하나 목사)에선 6·25전쟁 참전국을 향한 감사의 인사가 오갔다. 6·25전쟁 UN 참전국을 대표해 인사한 멜레티우스 쿠라클리스 그리스 군종감은 "정전 후 7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UN 참전국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며 "여러분의 진심 어린 감사를 품고 고국으로 돌아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한국을 수호할 가치가 있었음을, 한국 국민이 이를 증명하고 있단 사실을 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6·25전쟁 74주년을 맞이해 '한국교회 군선교대회 &UN 참전국 군종대표 환영리셉션'을 개최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를 주제로 열린 행사는 그리스 네덜란드 미국 필리핀 등 6·25전쟁 참전국 군종 대표자를 비롯해 한미연합사 군종실 관계자와 예비·현역군종목사, 교인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병극 문화관광체육부 제1차관은 "6·25전쟁을 거치며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단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6·25전쟁에서 UN은 대한민국의 친구가 돼 줬다. 여러분의 헌신과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큰 나라로 성장한 건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행사에선 나라와 군선교를 위한 기도회도 진행됐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와 청년선교를 위해' 한목소리로 기도했다.

예배에는 김삼환 군선교연합회 이사장이 '왜 모세의 손이 귀한가'(출 17:8~16)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성경은 '이 땅에선 전쟁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한다"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에서 일어난 전쟁은 남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해주신다"며 "가장 강한 손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아기는 가정예배 시작할 최적기…

찬양·말씀 암송 통해 신앙 기초 쌓아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도구로 '가정예배'가 조명됐다. 자녀가 어릴수록 가정예배를 시작하기에 더 좋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 중랑구 영안교회(양병희 목사)는 지난 15~16일 교회 교육관과 본당에서 교육부서 부모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정예배를 일단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국성품협회 부모교육 강사인 민경희 영안교회 전도사가 강의를 맡았다.

민 전도사는 영유아·유치부 시기 아이들의 특징과 함께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신앙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부모들에게 가정예배 시도를 권하며 "이 시기가 지나면 가정예배를 도입하기 쉽지 않다. 유아기는 가정예배의 전성기"라고 강조했다. 민 전도사는 가정예배를 위해 부모가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라는 조언도 했다. 말씀 암송 등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가정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전도사는 "가정예배는 어렵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아이의 의식 속에 교회가 '좋은 곳' '가고 싶은 곳'으로 자리 잡기 위해 부모가 먼저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교회에 갈 때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 전도사는 가정 내 신앙교육에서 유아기가 중요한 까닭은 이 시기의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찬양과 말씀 암송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기심 많은 시기에 부모와 함께 성경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앙의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자녀의 연령대에 맞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며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병희 영안교회 목사는 "가정이 살아야 신앙이 산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겨선 안 된다"며 "부모가 본을 보이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배고픈 자, 누구든지 줄을 서시오" …의정부 시청 광장의 특별한 한끼

의의나무선교회, 매 주일 오후마다 한끼 봉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한끼입니다." 봉사자들이 함께 이렇게 구호를 외친 뒤 배식 봉사가 시작됐다. 구호사역 선교단체인 국제의의나무선교회(이준 목사)는 주일 오후마다 의정부 시청 앞 광장에서 이웃들에게 밥 한끼를 전한다. 국제의의나무선교회는 2009년부터 미국에서 노숙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다. '의의나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직접 심으신 나무'라는 뜻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는 비전을 담았다.

선교회는 한국 의의나무 지부를 세우고 1년 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한끼' 나눔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단체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사역 목표에 따라 한끼 나눔 사역 등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있다.

55회째 한끼 나눔 사역이 예정된 16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앞 광장. '예수님이 주시는 한끼' 문구가 내걸린 간판 옆으로 50m가 넘는 대기줄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 30도에 육박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은 150인분에 가까운 음식을 나눴다. 선교회가 나눈 '한끼'는 밥, 국, 카레와 같은 간편식은 물론 빵과 음료수까지 포함됐다. 때에 따라서는 두 끼도 충분히 가능한 분량이었다. 배식 장소를 시청 앞 광장으로 정한 이유가 있다.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가 근처인 데다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광장 근처에 사는 강영자(84) 할머니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매번 친절히 맞아주고 챙겨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며 "근처 교회라도 다닐까 고민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 의의나무 사역은 지난해 5월 시작됐다. 초창기에는 행인과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30인분을 나눴지만 지금은 10분 만에 160인분이 동이 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용 대상도 노인, 불우이웃 등에서 근처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어린아이까지 다양해졌다. 줄을 서서 기다린 사람이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음식을 받을 수 있다. 1년새 인파가 몰리면서 10명 미만이었던 봉사자 수도 2배 이상 늘었다. 봉사하는 이들은 의의나무 의정부 센터에 소속된 사역자들과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선교회가 지난 1년간 얻은 열매는 베푸는 기쁨이었다. 이규헌(44) 한국 의의나무 팀장은 "단체에서 주는 한끼가 자신에게는 호텔에서 대접받는 음식보다 값지고 소중하다는 감사 인사를 들은 적 있다"며 "그분은 실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단체에서 주는 한끼를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의의나무 선교회는 모든 재정관리를 사역자와 팀원들의 헌금으로 운영하는 자비량 단체다. 사역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근처에 있는 예닮교회(김춘선 목사)가 빵을 후원해주고 매주 찾아오는 이들도 십시일반 후원에 동참했다고 한다. 이 팀장은 "꾸준한 후원과 봉사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역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자원자들이 생기면 센터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하며 도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세대 살릴 '0원 캠프' "교사 없어도 OK"

GMMCAMP 참가자 모집 시작

미자립교회 다음세대를 세우는 연합수련회가 올해도 곳곳에서 마련된다.

GMMCAMP(대표 한신 목사)는 15일부터 중·고등학생 청년 연합캠프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인솔자를 포함해 15인 미만 인원이 참석하는 교회만 등록할 수 있고 도서 산간지역 교회 신청은 우선 접수한다. 캠프엔 인솔교사가 동행하지 않더라도 참석할 수 있다. 다음세대만 참석한 교회엔 캠프 섬김이 50여명이 교사 역할을 대신한다. 캠프는 오는 8월 1일부터 경기도 구리 순복음성령의 교회에서 사흘간 열린다.

GMMCAMP는 2008년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God Makes Me)'란 주제로 해마다 무료 캠프를 열고 있는 단체다. 미자립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무료 캠프이지만 강사진 면면은 유료 캠프에 견줄만 하다. 이번 캠프엔 박광리 우리는교회 목사를 비롯해 수학 일타강사인 차길영 세븐에듀 대표와 '한길쌤' 전한길 강사 등이 마이크를 잡는다.

캠프는 선착순으로 300명을 모집한다. 캠프를 준비 중인 조은 간사는 16일 "교회 재정과 섬김이 50명으론 300명 이상을 커버하기 쉽지 않다"며 "매해 캠프에 참여하는 교회 가운데 30% 이상은 인솔교사 없이 혼자 혹은 2~3명만 참석하는 작은 교회"라고 설명했다. 조 간사는 "인당 7만~10만원씩 하는 여름 캠프 비용은 작은 교회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적은 사례비조차 고사하시고 오히려 간식비를 주고 가시는 강사님들, 캠프 섬김이로 봉사하는 청년들 덕분에 무료 수련회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부산 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도 농어촌교회·미래자립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무료 하기수련회를 준비 중이다. 다음 달 29일부턴 사흘간 청소년 하기수련회, 오는 8월 15일부턴 같은 기간 청년 하기 수련회가 진행된다. 등록비는 '노쇼(예약부도)' 방지 목적으로 받고 참석 시 전액 돌려준다. 교회 역시 무료 수련회란 타이틀과 함께 최정상급 강사들과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를 표방하고 있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과 예람워십이 각각 청소년 청년 수련회에 함께 하고 김문훈(포도원교회) 강은도(더푸른교회) 임우현(번개탄TV) 목사는 두 수련회에 모두 참석해 메시지를 전한다.

기윤실, 소비 효능감 키울 청년 모집 "상담비는 무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년희망재무상담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 조성돈 조주희)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재무상담소 윙즈WINGS'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7~8월 월별로 6명씩 신청자를 모집하고 상담비는 무료다.

윙즈는 기윤실이 청년들의 재정관리 및 부채 해결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202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자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파악한 뒤 전문 재무상담사가 채무상환 및 저축계획과 소비 예산을 조언한다. 필요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통한 채무 비용 조정 등도 상담한다. 상담은 총 3회에 걸쳐 대면으로 진행되고 참가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 마친 청년 가운데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정의 생활비도 지원한다.

프로그램 담당자인 윤동혁 기윤실 간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목적 없는 지출은 물론이고 무조건 저축만 하는 태도도 능사는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어떤 소비에서 만족감을 누리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소비 습관을 길러주는 게 프로그램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57)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선교사의 소명과 선교 대회

선교사의 길을 걸으며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심리적 번아웃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고립감으로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의 적응 문제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 현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으며,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로 사역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선교대회는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가장 실제적인 선교에 동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화적 도전과 언어 장벽

선교사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문화적 적응입니다. 다른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지속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년도 채 되지 않은 선교사에게 교회가 개척되었는지, 몇 명이나 전도했는지 묻는 후원교회의 질문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언어를 배울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초기 문화 적응에 실패하면 평생 타문화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립감

재정적 어려움은 선교사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선교사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때부터 편한 삶을 포기했지만, 지속적인 재정 압박은 선교사들을 지치게 합니다. 심리적인 고립감과 외로움도 큰 문제입니다. 이는 정서적 불안 요소가 되고, 가중된 스트레스로 인해 번아웃을 초래합니다. 선교사가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을 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가족 문제와 건강 문제

선교사는 가족 문제로 고민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가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은 선교사가 중도 탈락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지만, 모든 선교사 자녀에게 맞는 유일한 답은 없습니다. 선교사의 건강 환경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사역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의 소명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역을 지속하는 선교사들의 특징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선교사의 소명과 현실"이라는 책에서 선교사의 소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8:19-20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명령에서 비롯됩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사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선교사의 소명 인식 과정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교사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버트 케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에는 호기심, 관심, 이해의 지적 생각의 과정, 확신, 신념, 서약의 정적인 마음의 과정, 행동이 따르는 의지의 과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세 과정의 7단계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부르심을 인식할 때 비로소 소명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I am here by God's appointment),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여기 있다.(I am here in His keeping.) 하나님의 훈련 아래 내가 여기 있다.(I am here under His training)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위해 내가 여기 있다. (I am here for His time.)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내가 여기에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소명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소명을 확인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선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순수한 동기와 잘못된 동기

선교사도 때로는 불순한 동기로 선교사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르카일은 선교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불순한 동기를 가질 수 있는데, 제국주의적 동기, 문화적 동기, 상업적 동기, 교회 식민주의적 동기를 지적합니다. 심지어 한인 선교사들 가운데 교육적 동기, 스팩쌓기를 위한 동기, 생계형 동기, 심지어 유배적 동기가 있다고 김종성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동기로 인해 선교지를 흐리게 하고, 선교사 사회를 혼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사례와 기대감

많은 사람들이 불순한 동기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순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선교사로 헌신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모든 선교사들에게 큰 기대감과 소망을 줍니다.

대책과 지원

잘못된 동기로 선교지에 나가 큰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선교지를 떠나도록 제재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교단체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는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의료 지원을 통해 선교사의 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봉사팀을 파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후원자들은 지속적인 재정 후원을 통해 선교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사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선교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이 고립감을 덜 느끼도록 교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 대회의 중요성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선교대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대회는 선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 대회를 통해 선교사로의 부름, 소명의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영적 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대회는 후원자들과 교회가 선교사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선교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선교사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격려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후원자들과 교회는 선교사들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교 대회는 선교사와 후원자,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선교단체 대표들도 함께 모여 더 효율적으로 선교사들을 돕는 조직적인 대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교사들이 함께하여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안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들과 전문가들이 멤버 케어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하는 네트웍이 만들어지며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선교 대회를 통해 번아웃된 선교사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만큼 큰 선교적 효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선교사 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바로 이 때에 나를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결론

선교사의 소명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목표이자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며 제자로 삼는 것이 선교사의 핵심 임무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선교 대회는 이러한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며, 그들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dr.yongcho@gmail.com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 (7)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피고석의 하나님

루이스의 생애와 작품을 살피면서 많이 배운다.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몇 가지 실천 가능한 것들도 발견한다. 이렇게 발견하고 배우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평소 삶으로 쌓아가는 삶의 실력이다. 그는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았고 그 삶의 결실들을 정리하여 결과물을 만들었다. C. S. 루이스가 남긴 40여 편의 저서는 루이스가 평소에 쓴 칼럼, 평소에 나눈 설교, 방송 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루이스는 30여 년을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안정되지 못했다. 말년에 케임브리지에서 중세문학 교수직을 얻어 이동했다. 그래서 그는 늘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루이스는 일상의 삶에서 충실했다. 루이스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에 최선을 다했다. 루이스는 원고 요청이나 설교 및 강연 요청을 거의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고 늘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한다.

1939년 10월 22일 주일 밤 루이스는 옥스퍼드 내의 성마리아 교회에서 대학생 예배에 설교했다. 2차 대전에 영국이 참전을 선언한 직후에 드린 이 예배 후 루이스는 수차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원고를 모아 책으로 펴냈다. 루이스 연구가요 테일러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 조 리키(Joe Ricke)박사는 성 마리아 교회 대학생 예배에서 설교한 루이스의 원고에는 수많은 메모가 가득하다고 전한다. 설교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루이스 모습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 좋은 원고가 생산되었고 다음 기회에 초청을 받았다.

루이스는 옥스퍼드 생활 중에 중요한 두 모임에 참가했었다. 이 두 모임이 루이스의 삶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첫 번째는 문학 모임인 잉클링스(Inklins)다. 친구 영문학자 톨킨과 함께 이끈 잉클링스는 루이스에게 창작에 필요한 창의성과 글을 계속 쓰는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었다. 치열한 토론과 비평 그리고 격려를 통해 루이스를 문학적 소양을 쌓고 작가로 성장하게 했다.

둘째는 기독교 신앙 난제를 토론했던 '옥스퍼드 소크라테스 클럽'이다. 소크라테스 클럽은 잉클링스와 전혀 다른 점에서 루이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1942년부터 소크라테스 클럽에 참가한 루이스는 이 클럽의 지도교수와 회장을 지냈다. 이 모임은 기독교와 관련된 지적 난제들을 토론하는 클럽이었다. 기독교의 쇠락을 걱정하던 대학 당국이 설립했는데, 한 주는 기독교인이 논문을 발표한 뒤 이에 대해 불신자가 답변하고, 그 다음 주에는 불신자가 논문을 발표하고 기독교인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옮긴 1954년까지 루이스는 13년간 실질적 리더로 소크라테스 클럽을 이끌었다. 소크라테스 클럽의 활발한 활동으로 기독교가 지적 수세에 몰려 있었던 옥스퍼드 대학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아울러 학문영역에서 기독교 위상을 높이고 기독 지성인들이 학문과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학자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옥스퍼드 소크라테스 클럽은 옥스퍼드 대학교를 포함한 당대 젊은 지성인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소크라테스 클럽은 매주 월요일 밤에 모였다. 비교적 늦은 시간인 8시 15분에 시작해서 10시 30분에 마쳤다. 통상 60명에서 100명의 젊은이가 모였다고 한다. 굉장히 활발한 모임이었다. 가장 많이 모였던 소크라테스 클럽의 모임에는 250명 모인 적도 있다고 전한다.

이 소크라테스 클럽은 〈Socratic Digest〉라는 기관지를 운영했다. 이 소크라테스 다이제스트에 루이스는 자주 기고를 했다. 루이스의 〈피고석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많은 칼럼이 〈Socratic Digest〉에 기고했던 글들이다. 이 책에 있는 〈교리없는 종교〉는 소크라테스 클럽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고, 〈소크라테스 클럽의 설립〉이라는 글은 〈소크라테스 다이제스트〉 창간호에 실린 머리글이라고 한다.

〈피고석의 하나님〉은 이 책 2부에 있는 한 꼭지의 글에서 따온 이름이다. 사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현대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할 때 만나는 어려움들〉이었는데 루이스의 비서였고 평생을 C. S. 루이스의 자료 발굴과 정리에 헌신했던 월터 후퍼(Walter Hooper)가 〈피고석의 하나님〉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로 사망하기 전까지 루이스 전도사로 평생 살았다.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은 루이스가 쓴 칼럼 48개로 구성되어 있다. 48개의 칼럼은 신학적, 윤리적 질문들에 답하는 묵직한 주제를 다룬 글들이다. 그중에 이 책의 제목이 된 칼럼 〈피고석의 하나님〉의 서두에서 루이스는 이 글은 쓴 목적을 밝힌다. '현대의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려 할 때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에 관해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루이스가 밝힌다. 전도하는 데 어려운 문제를 알려 달라는 부탁이었다.

루이스는 전도의 장애물이 언어적인 어려움과 청중의 머릿속에 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교만한 현대인은 죄책감이 없다. 과거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고 병든 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인은 스스로 의인이고 건강한 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루이스는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 하나님께(또는 신들에게)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에 맞는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략)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지성주의 때문에 전도가 힘들다고 밝힌다. 실제로 루이스는 이웃에게 거의 전도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기독교인의 티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루이스는 자신이 하는 일을 '예비적 전도(Preparation Evangelism)'라 한다. 루이스의 인문학과 글쓰기는 반기독교적 사회에서 전도의 길을 닦는 작업이었다. 그의 작품들은 반기독교 사회로 급락하던 영국과 세계 지성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회복시키시는 주님 (시107:33-43) 찬 486장

시인은 복과 화를 구분하며 의의 길을 걷는 자의 행복에 관해 노래합니다. 첫째, 두 종류의 인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주린 자(36), 궁핍한 자 (41) 정직한 자(42)로 표현되었고, 후자는 악한 거민(34), 방백으로(40)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입니다. (마5:3) 이미 예수 믿어 의인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는 의인의 평탄 대로를 걷기 위해 영적 가난에 머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둘째, 두 종류의 결과. 악인에게는 강이 광야로, 샘이 마른 땅으로, 옥토가 염밭으로 바뀌지만, 의인은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어 곤란 중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악인은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지만, 의인은 초원의 양무리와 같게 하십니다. 기준이 점점 모호하게 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그의 뜻을 분별하여 참된 회복 곧 안식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화 주를 신뢰하라 (시108:1-13) 찬 488장

그리스도인의 용맹은 골리앗에 대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깁니다. 아무리 약해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용맹의 근거.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그는 선택하시고 구분하시고 간섭하시는 주권자요 섭리 주시기 때문입니다. (5 - 10) 둘째. 용맹의 시작. 마음으로부터 예배하기를 작정할 때 시작됩니다. (1,12) 시인이 새벽에 찬양하며 열방과 만민 중에서 선포하는 용기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용맹의 결과. 모든 용맹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근거를 둔 용맹은 반드시 찬양할 수 밖에 없는 승리를 안겨줍니다.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게 합니다. 마귀 소굴과 같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킬 때만 능력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 하나님께 헌신할 날 (시110:1-7) 찬 216장

메시야 시편으로 알려진 본문은 종말론적 구원의 때를 가리켜 "권능의 날(3), "그 노하는 날(5)"로 묘사했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헌신의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나옵니까? 첫째, 그때는 원수가 멸망하는 시대이며(1) 주의 권능으로 다스리는 시대며(2) 주의 왕권이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귀신들린 아이를 말씀으로 고치시듯이 주께 나가기만하면 치유되는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둘째,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3절에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1)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가리킵니다. 불과 화살 같은 자극적인 죄를 경계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2)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큰 권능은 자원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고 인색함이나 동정으로 하지 못합니다. 3) 주께 열심히 나갑니다. 주께만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성결과 헌신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 여호와를 경외할 자 (시111:1-) 찬 354장

구약적 믿음의 표현인 경외 신앙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할 때 생김을 본문은 잘 말해줍니다. 첫째, 여호와 경외자란?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의 크신 행사, 영원한 자비의 행사, 의의 행사, 진실의 행사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성실한 자요. 회중 가운데 찬송하는 자입니다. 둘째, 경외자에게 3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의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5) 둘째는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6) 셋째는 구속 안에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10) 하나님 한 분을 잘 모시는 경외 신앙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큰 은혜를 받읍시다.

금 정직자가 받을 복 (시112:1-10) 찬 446장

정직자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어떠하며 어떤 복을 받는가요? 첫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이며, 어질고 자비하며 의로운 길을 가는 자이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 믿는 자와 별개의 것이 아닌 까닭은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러면 정직자가 받는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후손이 강성해지고(2)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3) 흉한 소식을 들어도 영원히 요동치 않으며(6 - 7) 견고한 마음에 영원한 의를 가지는 근본적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소멸되고 맙니다. 요셉의 원천적 축복의 완성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실하게 따릅시다.

토 자기 백성에게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 (시113:1-9) 찬 40장

여호와의 종들로 표현된 그리스도인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영원히 그를 찬송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찬송해야 합니까? 첫째, 그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나라 위에, 모든 영광 위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잘 보여야만 좋은 날이 옵니다. 둘째, 그의 놀라운 구원역사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심으로 보호하시며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며(구원) 거름더미에서 드사 방백과 함께 앉게 하시며(영예) 자녀로 인한 즐거움을 가진 어미가 되게 하십니다.(희락) 상 번제를 드린 제사장들의 가슴 속에 늘 있었던 그 희락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찬송 받기에 합당한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송합시다.

기독교교육 (51)

싱글스 사역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싱글스는 현재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며, 미혼과 비혼의 독신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회의 여러가지 추세로 인해 싱글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젊은 싱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욜로(YOLO)를 강조하며 저축이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욜로는 "인생은 한 번 뿐이다(You Only Live Once)"라는 영어문장의 앞글자들을 모은 단어로 "미래 일은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라"는 말입니다. 둘째, 이혼, 별거, 혼외출산 등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데 특히 독신모가 가장인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셋째,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동거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데이팅 앱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애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별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싱글들은 모태솔로 그룹, 이혼한 남녀 그룹, 사별한 남녀 그룹, 그리고 교회생활의 싱글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이혼이나 사별한 남녀들은 다시 싱글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돌싱(돌아온 싱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각 그룹은 나름대로 특성과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태솔로는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싱글들입니다. 그들은 독립적이어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미생활이나 교육을 추구합니다. 결혼보다는 직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싱글로 지내는 기간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봅니다.

모태솔로들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정, 네트워크, 사회활동의 기회 등을 통해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구직에 성공하고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추구합니다. 싱글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와 책임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필요한 지식,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혼한 싱글들은 결혼생활에서 파경을 맞은 싱글들입니다. 이혼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혼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 불화와 분쟁과 별거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 고통을 주고받습니다. 그때 생겨난 상처로 인해 이혼한 싱글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 대인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합니다. 이혼을 인생의 실패로 보는 싱글들도 있고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로 보는 싱글들도 있습니다.

이혼한 싱글들은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절차를 거치며 감정적인 탈진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족, 친구, 상담을 통해 치유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자신들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약물남용,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등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재정관리와 건강관리 등의 분야에서 홀로서기 하는 방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직업과 교육과 사회생활을 새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찾습니다.

사별한 싱글들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슬픔과 허전함과 후회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외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사는 남자는 홀아비라고 부르고 남편을 잃은 여자는 과부 또는 미망인(未亡人)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망인은 남편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야 하나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여읜 부인이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말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2인칭 또는 3인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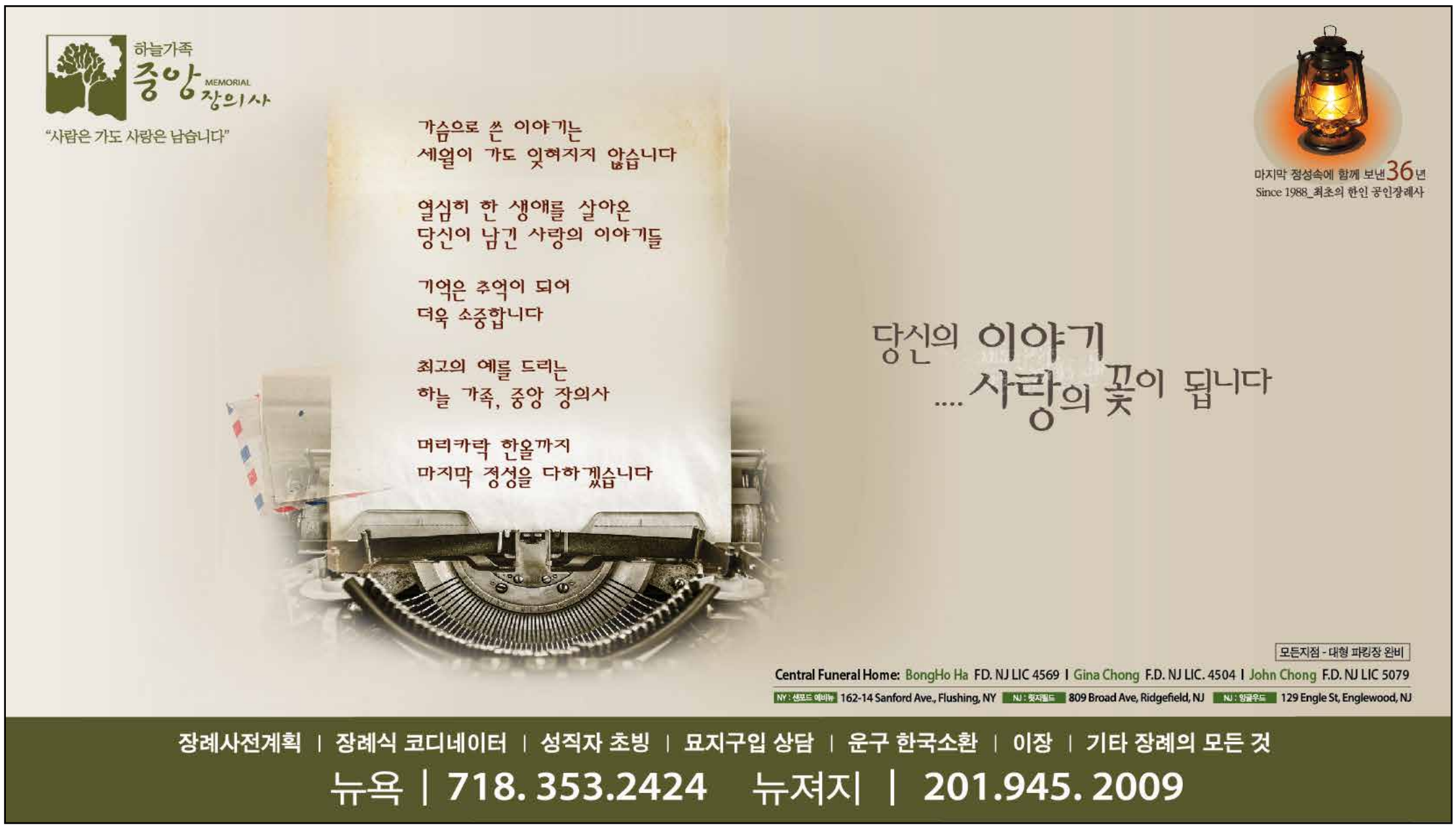
사별한 싱글들은 상실과 비통의 위로를 통한 심리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건강의 회복을 위해 서포트 그룹이 필요하며,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집안일, 자녀양육, 요리, 장보기 등의 일상적인 일에 도움이 필요하며, 재산관리 등의 법적인 문제에 있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생활의 싱글들은 혼자만 교회에 출석하는 기혼자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배우자가 무신론자이거나 타종교를 믿습니다. 배우자가 크리스천인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다른 교회에 출석하거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안 나가)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싱글들은 교회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헌신적으로 동참합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생활의 싱글들은 교회로부터 기도와 목회적인 지도와 신앙적인 서포트 그룹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신앙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돈독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활동과 가정생활에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일한 처지에 있는 싱글들이 모여 위로와 격려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싱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싱글 그룹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사역을 통해 싱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사역자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JONK@DBU.EDU



가정선교

86.부부의 종류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사는 형편, 처지, 입장, 환경, 그리고 교육, 경제, 종교, 사상 및 생활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잉꼬 부부(Devoted Couple)
다정하고 금실(琴瑟)이 좋은 매우 화목한 부부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원앙부부라고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상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2. 쇼윈도 부부(Show Window Couple)
마치 쇼윈도 속의 마네킹처럼, 이상적인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연출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이같은 쇼윈도 부부가 연예인 커플들에게 많습니다. 유명세 때문에 대중의 눈길이 집중되기에 과장되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의 특성상 자신의 이미지에 흠집을 낼 일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예계에 '쇼윈도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3. 맞벌이 부부(Two-Earner Couple)
집안살림과 생계를 위하여 결혼한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부부를 맞벌이 부부(Two-Earner(Paycheck, Career) Couple)라고 말합니다.

4. 주말 부부(Week End Couple)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새는 웬만하면 다들 맞벌이를 하고 일이란게 꼭 자신이 사는 도시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직장생활의 경우엔 외지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집을 두고 외지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5. 박새 부부
박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텃새로 귀소성이 강하고 다른 종류의 새(진박새, 나무발발이, 동고비 등)들과 혼성하여 다닐 만큼 친화력이 좋은 새입니다. 박새처럼 구성원 간에 친화력이 좋고, 공감이 있는 대화와 협동, 그리고 가족애가 좋은 부부를 '박새 부부'라고 합니다.

6. 침묵 부부 〈-〉 대화 부부
부부 사이에 침묵은 금이 아니라, 침묵하면 금이 가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용납하고,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자라는 자녀들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대화가 오고 가는 대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7. 퉁명 부부 〈-〉 감사 부부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퉁명스러움입니다. 짜증이 결국 부부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들도 짜증을 잘 냅니다. 원망, 불평을 버리고 애교와 사랑이 넘치는 친절한 감사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8. 돈돈 부부 〈-〉 신앙 부부
무엇이든 돈과 연결시키는 부부는 곤란합니다. 결혼생활의 행복에 있어서, 돈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도 부모나 사람들의 기준을 돈에 따라 정하고, 모든 인생을 돈으로 환산을 하고, 결국 돈이 없으면 끝장을 내고 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값진 신앙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9. 달달 부부 〈-〉 평화 부부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각자의 영역과 자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꼬치꼬치 캐묻고 달달 볶지 맙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잔소리 또는 이론가입니다. 서로 간에 안식과 평안을 주는 평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10. 험담 부부 〈-〉 칭찬 부부
부부 서로 간에도 상스러운 말을 해선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의 흉을 잘 보고 결국 참소하는 자가 되어, 어떤 그룹에서나 결국은 소외(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서로 단점을 보완하고 칭찬하는 칭찬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11. 외도 부부 〈-〉 애정 부부
바람 피우는 것만이 외도가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지 않고 밖으로 나도는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외로움을 곧잘 느끼고, 부모의 사랑 결핍으로 자신감이 결여되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을 하다가 안되면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감싸주는 애정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12. 따로 부부 〈-〉협력 부부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달달 볶는 것도 문제지만, 무관심과 무간섭의 부부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이들 부부는 결국 자녀에게도 무관심을 하고 자신들의 일만 하기에, 자녀들은 고아처럼 자라나는 외톨이가 됩니다. 문제아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을 합니다. 서로 보실피고 도와주는 협력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13. 폭력 부부 〈-〉치료 부부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고 먼저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범죄행위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치료하는 치료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14. 무시 부부 〈-〉 존중 부부
사사건건 무시받고 살면, 모든 일에 힘이 빠집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능력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존중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15. 속임 부부 〈-〉 진실 부부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속이는 것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짓말 하나 때문에 문제가 눈덩이처럼 자꾸 커지는 것을 봅니다. 진실이 항상 넘칠 때, 기쁨과 축복이 옵니다. 항상 비밀없이 허물을 덮어주는 진실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북부 민 한 종족

▲ 인구
약 11,015,200명

▲ 종교
무교 40%, 불교 30%, 민속 종교 20%, 복음화율 10%

▲ 복음매체
신약 번역됨(1934), 구약 번역 필요,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파일
4세기 초 흉노족에게 서진의 수도인 뤄양을 빼앗기면서 많은 이민족들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이후 복잡한 정복과 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족이 확장되었다. 북부 민 한족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생되었다.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한족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언을 가지고 있다.

▲ 기도제목
1. 북부 민 한족 내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2. 이들의 언어로 구약 번역이 시작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며느리 사랑, 모란 사랑'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18년 전쯤 일입니다. 6월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가 저를 찾아와 "아버님이 결혼 주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라는 부탁에 감동이 되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 결혼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주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던 날, 결혼 예식장이 많고 많은 꽃들 중에서 그 비싼 핑크빛 모란으로 가득히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제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아빠 며느리가 될 예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야."

그래서 제가 그 때 알았습니다. "아, 나의 며느리가 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화중의 왕이라고 하는 모란이로구나."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조금도 늦추거나 주저하지 않고 모란 한 그루를 사다가 장원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보고 싶을 때면, 모란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고는 했습니다.

모란은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아주 잘 자라서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다섯 곳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월에는 모란으로 정원이 아주 가득히 차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아 며느리에게 이런 글과 함께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모란, peony가 꽃을 활짝 피우려고 내가 가꾸고 있는 나의 정원에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구나. 너의 결혼식장을 가득히 채웠던 모란을 보며 '며느리가 모란을 좋아하는구나' 생각하며 나의 정원에 모란 한 그루를 사다 심었는데 그 모란이 이제 다섯 그루가 되었단다. 그렇게 내 정원에 심겨져서 자라고 피는 모란을 볼 때마다 며느리를 생각하고, 며느리가 보고 싶을 때마다 모란을 쳐다보기도 하고, 찾아가 매만져 보기도 한단다. 이렇게 봉오리가 커가고 있으니 머지않아 활짝 피겠지. 아주 예쁘게... "

이렇게 글을 써가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 오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아 2:16, 17)."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3페이지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도서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타데우스 윌리암스 / 두란노
어쩌다 거룩하게 나디아 볼즈웨버 / 윤종석 역
일상의 유혹 손성찬 / 토기장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훈 / 규장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 박영호, 복있는사람
생명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이인미 / 시시울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 김기석 / 도서출판 KMC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저널(시카고, 미국)

후 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6.25 74주년을 맞으며

이 성 모 목사 (은평교회 담임, 한북기독교역사연구원장)

6.25 전쟁, 1129일 동안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

1950.6.25 모두가 깊이 잠든 주일 새벽 4시. 북한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반민족적 전쟁을 일으켰다. 1129일 동안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 6.25 전쟁은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하고 마오쩌둥이 지원한 전쟁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북한은 골리앗 같았고 우리는 다윗 같았다,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전 국토의 95% 빼앗기고 겨우 5% 남은 부산을 지키기 위해 낙동강에 전선을 구축하고 사수해야 했다. 하나님은 세계지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UN군을 보내주셨다, 당시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패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원인은 뭘까.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1. 트루먼 대통령, 신속하게 미군 참전을 결정

1949년 6월 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당시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할 이유가 없었다. 더군다나 한반도를 미국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애치슨 선언이 발표된 뒤였다. 그러므로 자국이 공격받은 것도 아닌데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빨리 미군을 한반도에 투입 하도록 결정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2. 유엔군 참전을 결의할 때 소련 대표 불참

6·25전쟁을 둘러싼 미스터리 중 하나는 1950년 6월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 대표가 불참한 것이다. 만약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 참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3. 북한 공산군, 서울 점령 후 3일간 서울에서 지체

김일성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 각처에서 북에 동조하는 인민들의 대대적 봉기가 일어나 싸우지 않아도 남반부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박헌영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그 3일이 천금 같은 3일이었다. 결국 그 3일 동안 미군과 유엔군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시간을 만들어 줬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우연이었을까. 거기에는 분명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4. 인천상륙작전은 성경적 작전

인천상륙작전의 성공확률은 1/5000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은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반대했다. 인천상륙작전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작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장군은 이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빼앗긴 수도 서울을 89일 만에 수복하고 중앙청에 태극기가 휘날렸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은 기도했다. "우리 부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한국의 수도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 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아 멘 -.

5. 하나님은 전쟁고아들까지도 도우셨다

미 공군 군목 러셀 로이드 브레이즈델 대령(1910-2007)과 조종사 딘 해스 대령은 1.4 후퇴 때 전쟁고아 1.000여명을 비행기로 제주도에 공수하여 이들의 생명을 살렸다. 미국방부는 헤스 대령의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하고 영화(전송가)를 만들었다. 이 고아원은 전쟁이 끝난 후 1958년 경기도 송추로 옮겨서 지금도 운영중이다.

이 전쟁으로 피아간에 약 4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700명이 학살당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던 우방국 젊은이들의 희생도 말할 수 없이 컸다, 미군 5만4천명 희생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을 비롯해서 고위 장성급의 아들 142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35명이 전사 또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바드대학 식당에도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이 대학 출신 전사자 17명의 명단이 벽에 걸려 있다. 부산의 UN군 묘지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잠들어 있고, 국립현충원과 우리나라 산천곳곳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다.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팻말이 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없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군대를 보내주었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 주었기에 가능했다. 1129일 동안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다.

1953. 7.27 휴전협정 조인으로 이 땅에 총성은 멎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휴전일 뿐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북한지역에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고, 육로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ccc7296@naver.com

"이 땅에 총성은 멎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휴전일 뿐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북한지역에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고, 육로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이용규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Faith Theological Seminary
종교교육학 박사

60여년 목회, 2016년 소천
(LA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 시무)

강해설교집 목록

제1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제2권 아가서 강해
제3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제5권 썩지 않는 면류관
제6권 스가랴서 강해설교
제7권 위기를 이기는 길
제8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제9권 룻기서 강해
제10권 새천년에 할 일
제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제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제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제15권 하늘의 시민권
제16권 진정한 평화
제17권 하나님의 약속
제18권 십자가의 도
제19권 새벽을 깨우라
제20권 인간의 복된 사명
제21권 인생의 바른 길
제22권 승리의 신앙생활
제23권 선한 목자와 양
제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제25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제26권 빌립보서 강해
제27권 영원히 남는 생활
제28권 시온으로 가는 큰 길
제29권 베드로전후서 강해
제30권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제31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제32권 간추린 신학
제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제34권 위대한 사랑
제35권 데살로니가전후서 강해
제36권 큰 산아 평지가 되라
제37권 경건한 신앙생활
제38권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제39권 그리스도의 승리
제40권 갑절의 영감
제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제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소책자로 출판하였기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6、25 전쟁 기념 설교"

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 제 42권에서 발췌

본문(Scripture) 에스겔(Ezekiel) 24:1-6

제목(Topic) **끓는 가마의 환난**

(Tribulation of the Boiling Pot)

[끓는 가마의 환난을 면하는 길]
[The ways to avoid the tribulation of the boiling pot]

(1) **과거의 환난을 기억할 것** 1, 2
(Remember the past tribulation)

(과거의 기억할 환난)
(The tribulations of the past that should be remembered)

(A) 6 · 25 전쟁을 잊지 말 것 시(Ps) 116:3,4
(Do not forget about the Korean War)
(B) 도와준 자들을 잊지 말 것 시(Ps) 103:2
(Do not forget the ones that helped)

(2) **북방의 환난을 경계할 것** 3-5
(Be alert for the tribulation from the north)

(끓는 가마의 환난을 보여준 목적)
(Purpose of showing the tribulation of the boiling pot)

(A) 신앙의 잠에서 깨어날 것 렘(Jer) 1:11,12
(To be awake in faith)
(B) 안일주의 생활을 떠날 것 살전(1Th) 5:2,3
(Go away from an easygoing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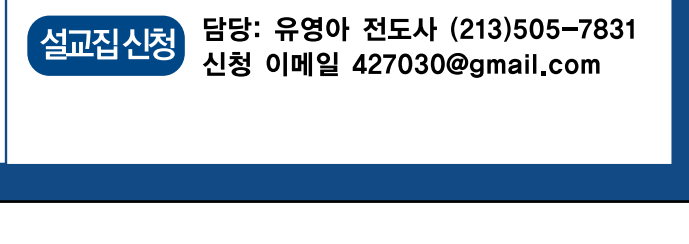
(3) **가마 속을 깨끗하게 할 것** 6
(Clean out the inside of the pot)

(가마 속을 깨끗케 하는 법)
(Method of cleaning out the inside of the pot)

(A) 가마의 녹슨 것을 제할 것 사(Isa) 1:18-20
(Take out the corrosion that is inside the pot)
(B) 가마 안의 죄악을 제할 것 시(Ps) 66:18
(Take out the sin that is inside the pot)

설교본문: **에스겔 24:1-6**

1) 제 구 년 시월 십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3)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4-5)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찌어다
6)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찐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찌어다



설교집 책을 받아보기 원하는 개인, 교회, 학교, 도서관 등 미국과 한국의 어느 곳에든지 무료로 우송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LA 동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오]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설교집 신청 담당: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427030@gmail.com